

2003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율기 주해와 설교에 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 학 과

역사신학전공

조 윤 제

칼빈의 율기 주해와 설교에 관한 연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 학 과

역사신학전공

조 윤 제

조 윤 제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최 은 수 _____

審査委員 권 문 상 _____

김 성 욱 _____

이 기 양 _____

웨스트민스터神學大學院大學校

논문개요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칼빈의 설교 방법론을 살펴보고 그의 율기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기 위한 균형감각을 갖는 데 도움을 얻고,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신의 설교를 돌아볼 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앞에 칼빈 같은 설교자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신학자로서의 칼빈을 먼저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칼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한 그의 신학 사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빌헬름 노이저 교수의 지적 대로 우리는 기독교 강요만을 가지고 칼빈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기독교강요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설교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일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칼빈의 다른 모습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칼빈의 성경 해석에 관한 관심이 더 해가면서 해석학적 입장에서 칼빈을 연구하는 시도가 있어 왔고, 특히 파커의 ‘칼빈과 설교’는 이러한 연구의 한 결실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칼빈을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바라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도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칼빈은 설교학에 관한 책을 저술한 일이 없으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설교학자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의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당시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결단하게 한 강해설교’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칼

빈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였던 것이며,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전하고, 설교를 들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높은 뜻을 가진 설교자였다. 그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 ‘성경 전부(Scriptura tota)’를 설교하려고 했으며, ‘성경만을(Scriptura sola)’ 설교하고자 했던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죽어 있는 사자처럼 무력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원어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설 새 없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었으며, 직유와 은유, 그리고 수사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살아 있는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을 벗어나 다른 데로 한없이 달려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욥기를 설교함에 있어서도 칼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는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별히 고난의 의미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징벌’이란 단어와 ‘징계’란 단어를 대비시킨 점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의미를 밝혀 줄 칼빈의 욥기 설교를 연구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칼빈의 욥기 주해와 설교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설교자와 설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욥기를 통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정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 새롭게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욥기를 설교함에 있어서 현대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Calvin's Exegesis & Sermons from Job

Cho, Yoon-Je
Department of Theology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looks into sermon methodology of Calvin, and to analyze his sermon from Job. So gets help in order to have a balance sense it is done, and to conform a purpose of our sermon to a purpose of God through the sermon of Calvin, and it is so to be going to recover glory of the sermon. We must look back at our own sermon first in order to recover glory of the sermon. It must be to consider a basis when we look back on own sermon if we say that we are so. It can be very fortunate work that there was a preacher as Calvin in that kind of point at our front. The reason is because we can find where we are giving way to through the sermon of Calvin.

In the meantime, it is true to have thought about Calvin as a theologian to infuse first. There has been a lot of study about Calvin throughout being so, but trend achieved his theology thoughts to have mostly did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o the center with the object is. However, We must admit that we were not able to speak all thing of Calvin only with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s indication of a Billhelm Neuser professor. A sermon had holden more important position tha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o

Calvin. Nonetheless an interest about his sermon reflects itself in the importance, and being a few interest is very true. It can be very fortunate work that we listens to that kind of point recently, and an interest about other figure of Calvin is becoming large. Until now, it is a fortunate an interest about biblical interpretation of Calvin were added more, a try to study Calvin in analysis position, and it is looked the fruits that this study especially did the 'Calvin and the sermon' of Parker. Prospective with what is proceeded very much and will do this study a part of that kind of try in the future.

Calvin does not have the work that wrote a book about Theology of Sermon, but he is one person among the greatest preachers and sermon scholars. Definition cannot do his sermon in a word, but his sermon is indicate a meaning of God and let take decide to live at the existence of God to the audiences in those days. The Calvin was convinced of the street where only the Bible can know a revelation of God clearly and introduced it into the audiences through a sermon, and it was the preacher who had a meaning to be high in order to let did a sermon with the audiences and live according to a meaning of God. He was the preacher who was faithful to the Bible text. Therefore, exhaust force, and he was going to preach 'Bible whole (Scriptura tota)', and 'Bible only (Scriptura sola)'.

The Calvin was not the ruler which was powerless like a lion dying in communicating a meaning of God. He had insight about the original word and was between an old promise and the New Testament continuously and exerted in order to deliver a meaning of God by a fresh language to be effective through questions to have let there be a simile and metaphor. Though is so, he endeavored not to make a mistake to gets out of the Bible, and run to other way endlessly. He is not to have been getting out of gospel contents centered in Christ all the time.

The Calvin did not get out of these principles in preaching Job either.

Though he looked deeply into a word and a word of the persons who appeared in Job, does not get out of the center of the all teachings in Bible, and the center of Christ. It can be significant thing to have let you contrast 'a disciplinary action' and 'a disciplinary punishment' for clear understanding about extra thorny meaning.

Specialy, It may be work studying Job sermon of Calvin bringing thorny meaning to light for the hard times as now in particular. Through the study on the Calvin's Exegesis and Sermons from Job I had an opportunity that tries to check on a preacher and a sermon once again and a opportunity to understand that problem of the life through Job. A problem will remains to apply to the life of modern faith in merely our preaching Job for these times.

헌사(Dedication)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감사의 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13)

먼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소개해 주었고, 재건교회 목회 현장의 동역자인 우동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덮어 놓았던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시 붙잡고 씨름할 때 눈이 번쩍 뜨이도록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 주셨던 오성종 교수님, 윤용진 교수님, 김영철 교수님, 그리고 오광만 교수님, 조직신학의 뼈대를 다 잡아 주셨던 이승구 교수님과 민종기 교수님, 격려와 사랑으로 강해설교와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눠주셨던 사랑하는 설교학의 김의종 교수님, 그리고 어두웠던 역사신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셨으며,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붙들어 다시 해보겠다는 결심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격려하시며 친히 이 논문까지 지도해 주신 역사신학의 최은수 교수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관계자분들까지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첫번째 목회지였던 서울 재건중앙교회의 박재준 목사님, 피까지도 나눠주시려는 사랑으로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셨던 차균희 장로님과 정세진 권사님, 깊은 사랑과 이해로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마산재건교회의 양영전 목사님과 김사형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목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재건배둔중앙교회의 심정만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그리고 재건진해교회의 이상봉 목사님과 이영실 장로님, 이병옥 장로님, 이종국 장로님, 박영진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 외에도 이름을 열거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는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어려운 결심으로 시집와서 사랑의 인내와 헌신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칼빈의 생애와 성경에 대한 입장	5
제 1 절 칼빈의 생애와 사상	5
1. 칼빈의 생애와 사상의 형성	5
2. 칼빈의 출생과 유년 시절	6
3. 칼빈의 청년 시절과 학문 탐구	8
4. 칼빈의 회심과 개종	10
5. 시대적 배경	13
제 2 절 칼빈의 성경에 대한 입장	15
1. 칼빈의 성경관	15
2. 성경의 필요성	16
3.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증거	17
4. 성경의 영감	20
제 3 장 칼빈의 주해와 설교 방법론	22
제 1 절 칼빈의 설교관	24
1. 칼빈의 설교와 성경	25
2. 설교의 구성과 본문의 선택	26
3. 성경해석의 원리와 적용	28
4. 설교자와 회중	31

제 2 절 칼빈의 주해와 설교의 특징	35
1. 칼빈의 설교의 문체	35
2. 칼빈의 설교의 스타일	37
3. 칼빈의 설교의 내용	40
4. 칼빈의 설교의 성격	43
제 4 장 칼빈의 율기 주해와 설교	45
제 1 절 칼빈의 율기 설교 분석	45
1. 율기 1:1의 설교	45
2. 율기 1:20-22의 설교	48
3. 율기 5:17-18의 설교	50
4. 율기 9:1-6의 설교	53
5. 율기 13:11-15의 설교	55
6. 율기 14:13-15의 설교	58
7. 율기 19:17-25의 설교	62
8. 율기 19:26-29의 설교	65
제 2 절 칼빈의 율기 설교 의 특징	67
1. 칼빈의 율기 설교의 성격	67
2. 칼빈의 율기 설교의 중심점	69
3. 칼빈의 율기 설교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이해	70
제 5 장 결론	76
참고문헌	7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동기와 목적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쉽 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방향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 과연 우리의 설교는 올바른 지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되돌아보며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설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 때일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지금 설교가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라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보다 시대적인 상황의 분석이나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 그친다거나 혹은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설교로만 채워진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 정성구의 주장대로 신학의 통제를 벗어난 설교, 즉 신학이 전혀 없는 제멋대로의 설교가 한국 강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 한국교회의 강단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²⁾. 그렇다고 해서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의 수많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기 위한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것으로 여긴다. 아울러 존 스타트의 지적대로 반권위적인 분위기와 인공두뇌학의 혁명, 텔레비전의 영향,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회의적인 분위기³⁾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있어서 변함없는 신념을 제

1) Clyde, Reid, *설교의 위기 (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3.

2) 정성구, *설교학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3), 30.

3) John, R.w.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Between Two World)*, 정성구 역, (중판,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101.

공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신의 설교를 돌아볼 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앞에 칼빈 같은 설교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칼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동안 우리는 신학자로서의 칼빈을 먼저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칼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한 그의 신학 사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칼빈의 다른 모습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칼빈의 성경 해석에 관한 관심이 더 해가면서 해석학적 입장에서 칼빈을 연구하는 시도가 있어 왔고⁴⁾, 특히 파커의 ‘칼빈과 설교’⁵⁾는 이러한 연구의 한 결실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칼빈을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바라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지난 2003년 10월 27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있었던 국제학술 공개강좌에서 빌헬름 노이저 박사가 기독교강요를 저술한 신학자로서의 칼빈만이 아니라 목회자이며, 설교자로서의 칼빈에 대해 보여주었던 관심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⁶⁾. 노이저 박사는 이날 강좌를 통해 칼빈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기독교강요에서와 설교에서 사뭇 다른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에 대하여 설교에서는 칼빈이 “창세 전에”(엡1:4)란 단어는 그냥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하였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기독교강요에서는 무관심하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이 기독교론적인 관심을 결여한다고 비판받는다면, 이 차이점이 그 중요한 근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칼빈의 설교는 6절에 나타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은혜로운 행위에 주된 초점이 있지만 기독교강요

4) 안명준, “해석학” *최근의 칼빈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1-66.

5) T.H.L Parker,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말씀사, 2002)

6) Wilhelm, Neuser, “칼빈의 예정론-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 주석”, (서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학술강좌, 2003), 강의안 5.

는 이 중요한 주제를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강요만을 가지고 칼빈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설교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일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칼빈의 설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본 연구도 그 일환이라고 하겠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의미를 밝혀 줄 칼빈의 욱기 설교를 연구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설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바른 설교의 방향을 회복하고, 특히 욱기를 통해 나타내시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칼빈의 욱기 설교에 대한 현대적 적용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구성

칼빈은 성경 전체를 주해하고 설교했지만, 아쉽게도 욱기의 주석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그의 성경 해석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주해와 설교들을 통해서 그의 성경 해석의 원리와 특징들을 상고해 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 칼빈의 설교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칼빈 자신의 설교는 그의 성경해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들을 통해서 칼빈의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욱기의 설교를 통해서도 칼빈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여기서는 서문강 율김의 “칼빈의 욱기 강해, 욱과 하나님”⁷⁾의 본문을 가지고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7) John Calvin, *칼빈의 욱기 강해- 욱과 하나님(Sermons from Job)*, 서문강 역, (3판, 서울: 지평서원, 2000), 56-250.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구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제 2장은 칼빈의 생애와 성경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생애와 사상에 관하여는 그의 생애와 사상의 형성을 살펴보고, 그의 출생과 유년 시절, 학생시절과 학문 탐구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의 회심과 개종 및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 3장은 칼빈의 주해와 설교 방법론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설교관과 그의 주해와 설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설교관에서는 그의 설교와 성경, 설교의 구성과 본문의 선택, 성경 해석의 원리와 적용, 그리고 설교자와 회중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 4장은 칼빈의 욱기 설교를 직접 분석해 보고 그의 욱기 주해와 설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욱기 설교 분석에서는 그의 설교 가운데 8편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으며, 칼빈의 욱기 주해와 설교의 특징으로서는 그의 욱기 설교의 성격과 중심점, 그리고 욱기 설교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제 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칼빈의 설교 방법과 특히 욱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고, 그의 욱기 설교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언하였다.

제 2 장 칼빈의 생애와 성경에 대한 입장

본장에서는 먼저 칼빈의 생애와 성경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의 학문 탐구 과정, 그리고 그의 개종과 회심의 시기에 관한 문제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칼빈의 사상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칼빈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알아봄으로 설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1 절 칼빈의 생애와 사상

1. 칼빈의 생애와 사상의 형성

칼빈(Jean Calvin)의 사상과 그 사상의 형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그의 사상 형성을 알아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수아 방델도 김재성에 의해 번역 출간된 그의 저서⁸⁾의 책머리에서 “본서는 칼빈의 생애를 완전히 설명하려는 의도로 쓰여지지는 않았으나 모든 전기적인 사항들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마치 루터의 사상을 설명할 때에, 그의 전기적 자료를 분리하는 일이 불가능하듯이, 칼빈의 삶을 특징지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배제한 채로 칼빈의 사상을 설명하려는 것은 역사적인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8) François Wendel,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11.

과 마찬가지로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지적 형성이나 사상 형성에 그의 생애의 각 시기에 경험한 사건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2. 칼빈의 출생과 유년 시절

칼빈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껏 정리 되어온 자료만으로도 칼빈의 생애를 일괄하여 볼 수 있다. 그의 출생은 그리 비범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루터보다 26년 늦게 태어났는데⁹⁾,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의 노와용(Noyon)이란 곳에서 출생했다¹⁰⁾. 당시 노와용은 세느(Seine)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우아즈(Oise)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역도시로서 강을 따라 파리와 프랑스 북부들을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해서 두개의 수도원이 있었던 오래된 작은 도시였다¹¹⁾.

칼빈이라는 이름은 원래 프랑스어로는 칼뱅이다. 그리고 그는 장(Jean)이란 세례명을 갖고 있어서 장 칼뱅(Jean Calvin)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불리오고, 라틴어나 독일어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칼빈으로 부르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여겨서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다행히 세계 칼빈학회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니¹²⁾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아버지는 본래 노동자로서 부지런하고, 조직적이고, 독립정신이 강해 노와용 감독교의 서기가 된 사람이었다¹³⁾. 그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마침내 그 지역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칼빈의 집안은 노와용에서 약 3km 되는 폰 레베크(Pont-l'Évêque)라는 곳에서 대대로 살아 왔고 할아버지는 수송선의 뱃사공일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어머니는 성내에서 신앙의 인물로 존경을 받았다.

9) G. R. Elton, *Reformation Europe 1517-1559*, (London and Glasgow: printed in Great Britain Collins clear - Type Press, 1963), 210.

10) De Lamar Jensen, *Reformation Europe - Age of Reform and Revolu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Messachusetts: D. C. Heath and Company, 1981), 111.

11)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43-49.

12) François Wendel, *Ibid.*, 16.

13)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93), 9.

칼빈에게는 한명의 형과 두 명의 동생이 있었으나 넷째인 막내동생은 어려서 죽었다. 그리고 151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곧 재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았다. 이중에 큰딸 마리(Marie)는 후에 칼빈의 바로 아래 동생 앙투완(Antoine)과 함께 제네바로 칼빈을 따라가서 그의 저술과 편찬을 도와주며 개혁의 동역자로 활약하였다고 한다.

칼빈의 아버지는 훌륭한 가문 출신은 아니었으나 자녀의 교육에는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그 덕택으로 칼빈은 어려서부터 자신과는 격이 다른 귀족의 자제들과 어울리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특히 몽모르(Montmors) 집안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몽모르 집안의 자제들과 어울릴 만큼 귀족적 태도와 취향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사촌이며 인근 지방 귀족 출신인 샤를 드 앙제(Charles de Hangest) 가문의 세 젊은이들과 함께 파리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칼빈의 인격과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칼빈의 아버지 제라르(Gérard)의 아들들이 노와용 대성당의 그늘에서 성장하고 주교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제라르가 주교단과 참사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노와용 성당에 속한 라 제지느(La Gésine) 제단에서 신부에게 지불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¹⁴⁾, 그 수입으로 칼빈의 형제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12살의 나이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 삭발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¹⁵⁾, 정성구 교수에 의하면 그는 이 때 그곳 신부를 보조하는 목사보에 임명되었던 것이다¹⁶⁾. 이는 칼빈을 성직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가문은 아니었어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비교적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François Wendel, Ibid., 17-18.

15)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Calvin et Sermon)*, 박건택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94), 12.

16) 정성구, Ibid., 9.

3. 칼빈의 청년시절과 학문 탐구

칼빈은 1523년 그의 나이 14세 때에 고향에 있는 까베뜨(Capptes) 대학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처음에는 대장장이인 아버지씨의 집에서 기숙하며 가정교사로부터 학습을 받았으나 크게 실망하여 곧바로 마르슈 대학(the Collège de La Marche)의 입학자격을 얻었다. 그곳에서 칼빈은 현대교육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마튀랭 코르디에(Maturin Cordier)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때 코르디에의 라틴어 강좌에서 도움을 얻은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몇 년 후에 칼빈이 제네바와 로잔의 교육기관을 코르디에에게 맡길 정도로 긴밀한 것이었다¹⁷⁾.

이후 칼빈은 마르슈 대학에서 몬테귀 대학(the Collège de Montaigu)으로 옮겼는데¹⁸⁾ 이 대학은 정통신앙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이 대학은 15세기말에 장 스탕동크(Jean Standonck)가 공동생활 형제단의 정신과 방법을 소개했던 곳이었으며, 그의 후계자인 노엘 베디에(Noel Vedier)는 신학부에서 루터파의 이설과 인문주의자들의 방법론에 대항하는 논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칼빈은 그곳에서 5년간을 머물고 있었는데, 칼빈이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유명론자인 요한 메이(John Major)가 몬테귀의 교수로 다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칼빈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한 메어는 1529년에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루터의 개혁에 맞서 가톨릭 교리를 변호하려고 쓴 사복음서 주석을 출간하였던 바, 그는 그 이전에 이미 그의 강의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었을 것이고, 칼빈이 그의 참석하여 루터파의 이론을 접하였을 것이 자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칼빈은 몬테귀에서 교부들, 특히 성 어거스틴을 심도있게 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칼빈의 초기 출판물에서 보여주었던 교부들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터이다.

칼빈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를 성직자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칼빈도 그러한 목적으로 철학을 공부 하였지만 후에 마음을 바꾸어 법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17) François Wendel, Ibid., 19-20.

18)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anslated by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57.

그 때에 칼빈은 멜키오르 볼마르(Melchior Wolmar)에게서 희랍어를 배우기도 하였다. 볼마르는 파리에서 그리스어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호메로스에 대한 몇 편의 주석을 출간하였다. 그는 독실한 루터파 교인으로서 신앙전과 활동으로 의심을 받던 처지였으며, 칼빈이 법학을 공부하던 오를레앙에서 그런 활동을 했고, 1529년에 나바르의 마르그리트 공주의 요청으로 부르제 대학에 자리를 잡은 뒤에도 여전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를레앙이 칼빈을 자기의 입장으로 가진 사람으로 회심시키려고 노력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칼빈 자신은 신앙적인 면에서 볼마르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결정적으로 단언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¹⁹⁾. 그렇지만 정성구 교수가 지적하듯이 당시에 희랍어를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²⁰⁾. 희랍어를 배운다는 것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멀리 항해를 떠난 간 것과 비견 되었다. 이는 희랍어를 배우게 되면 희랍어로 된 신약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로마 카톨릭을 떠나 복음주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528년에 칼빈은 문학석사학위를 받았고²¹⁾, 1529년에는 오를레앙을 떠나 부르제(Bourges)로 갔는데, 그 때는 유명한 알치아티(Andrè Alciat)가 로마법교수로 재직 하던 때였다. 칼빈은 알치아티의 허풍이 심한 강의를 매우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진정한 대표와의 대면에서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의 흠잡을 곳 없는 유려한 문체의 가치를 인정하게 했다. 칼빈의 정확하고 잘 다듬어진 라틴어 실력은 부분적으로는 알치아티로부터 받은 자극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죽음은 칼빈의 생애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칼빈의 아버지가 아들이 신학을 포기하고 법학을 공부하게 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노와용 교회의 고위 직분자들의 후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일류 직업을 갖도록 하고자 나름대로 생각한 바에 의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후에 칼빈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었고, 노와용에 남은 일들을 처리하자마자 파리로 가서 다시 문

19) François Wendel, Ibid., 24-25.

20) 정성구, Ibid., 118.

21) Justo L. Gonzales, *종교개혁사(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역, (10쇄,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103.

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²²⁾.

프랑스 대학교에서의 수학은 칼빈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 기간이었다. 이 대학은 교수에게 연구와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학생들에게는 학과 선택에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이미 볼마르로부터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습득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피에르 다네(Pierre Danes)의 과목을 신청하였으며, 이 때부터 히브리어 학자인 바타블(Vatable)을 가까이 접하여 히브리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4. 칼빈의 회심과 개종

칼빈이 언제 개종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파커(T.H.L Parker)는 칼빈의 생애 중에 그의 회심의 연대, 모양, 원인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학자들의 정력이 쏟아지고 더 많은 독창성이 발휘된 부분은 없다고 말하면서²³⁾ 칼빈이 회심한 시점을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법학을 공부할 당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⁴⁾. 그러면서 그전에 파리에서 공부할 당시에 회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확실한 것은 그가 파리대학교의 어느 대학에서 강사가 되었을 당시에 이미 종교개혁 진영에 합류하고 있었고, 곧 파리대학교 신학부에 의해 이단으로 단죄된 학장 취임사 작성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들고 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몇 달간 은신하다가 결국 파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정성구 교수도 칼빈은 1529년이나 1530년 초쯤에 개종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²⁵⁾, 이 역시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파커나 정성구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1529년경에 회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칼빈이 회심한 상태에서도 1534년까지 성직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22) François Wendel, Ibid., 28-29.

23) T.H.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John Calvin)*, 김지찬역, (2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313.

24) T.H.L Parker, *칼빈신학입문*, 박희석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1), 11-12.

25) 정성구, Ibid., 119-120.

칼빈의 회심 시기에 관한 다른 견해도 물론 있다. 프랑수아 방델(François Wendel)은 1447년의 시편 주석 서문에 나오는 구절과 1533년 8월 23일 노와용 참사회 총회와 관련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회심이 1533년의 노와용 참사회 총회와 1534년 5월에 그가 성직록의 포기를 위해서 다시 노와용에 갔던 사건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방델은 또한 1533년 만성절날(All Saint' Day)에 루브르 대학의 신임총장인 니콜라 콥(Nicolas Cop)이 마튀랭(Mathurins) 교회에서 산상 팔복 중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본문을 설교하였는데, 이 강연의 한 부분에서 개혁자들이 품고 있는 복음의 기능과 이신득의에 관한 내용을 토로하였으며, 이 연설이 칼빈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니콜라 콥(Nicolas Cop)은 왕의 주치의의 아들 중의 한 사람이었고, 칼빈이 파리에 온 때부터 줄곧 절친한 친구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초안의 원본 일부가 칼빈에 의해 쓰여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좋을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리샤르 스토페르(Richard Stauffer)도 조심스럽게 칼빈이 콥의 강연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리라고 동조하고 있으며²⁷⁾, 빌헬름 노이저(Willhelm Neuser)도 동의 하였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대한 콥의 연설은 아마도 칼빈에 의해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그 연설문의 시작 부분은 에라스무스가 신약성경 제 3권의 앞부분에 넣은 설교(Paraclesis)에서 거의 원문 그대로 빌려온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해석은 1525년 부처가 라틴어로 번역한 루터의 설교에 나온 구절 전체를 복사한 것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의 나머지 부분도 칼빈보다는 르페브르의 문체와 일치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칼빈이 동일한 본문을 매우 다르게 해석하였으며 공공연히 콥의 해석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걸림이 된다. 최근 황정욱 교수도 “코프 총장 연설문의 저작 문제”라는 논문에서 역사적 사료뿐 아니라 내용적

26) François Wendel, Ibid., 44-48.

27) Richard Stauffer, *종교개혁(La Réforme)*, 박건택역, (4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1996), 87.

28) Willhelm Neuser, *칼뱅(Calvin)*, 김성봉역, (경기: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0), 41.

근거에서도 이 연설문의 저작을 칼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²⁹⁾. 그렇다고 하여도 칼빈이 콥의 연설에 깊이 관여 했다는 사실만큼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으로 칼빈도 수배되었다는 틀림없는 사실 때문이다³⁰⁾.

칼빈에게 있어서 회심은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학문들과의 단절을 의미했으며, 이제까지 생애의 목표로 삼아왔던 인문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는 고대철학과 기독교신앙 사이에는 연관 지을 수 없는 단절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인간의 위대성에 근거하여 정립된 인문주의에 맞서, 이제부터는 죄악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인문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으나 회심 후에는 인문주의가 하나의 지적 수단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인문주의와 싸우기 위해 인문주의를 사용”하였으며, “유익한 정도 이상으로 철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는 것이다.

칼빈은 시편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시편 저자에게 동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자신의 회심에 따른 변화를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다윗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의 일생을 돌아 볼 때에 다윗왕이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동에서 왕으로 변한 것과 같이 칼빈 자신도 어둡고 더러운 밑바닥으로부터 높이 올려지게 되어 성경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사제직으로 일생을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의 계획은 갑자기 변경되어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면서도 자신의 등에는 기수가 타고 있고 입에는 자갈이 물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말과도 같았으며, 기수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이 방향 돌림이 바로 칼빈의 회심과 개종이었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어린시절의 자신의 신앙이었으며, 숭배의 대상이었던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미신이거나 아니면,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낸 종교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³¹⁾. 빌헬름도 칼빈 자신이 회심

29) 황정욱, “코프 총장 연설문의 저작 문제”, *최근의 칼빈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50.

30) François Wendel, *Ibid.*, 48-52.

31) 정성구, *Ibid.*, 120-121.

에 관하여 개혁적인 인식을 통한 대전환을 하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묘사하면서도 개신교적 인식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구교의 교리와 경건으로부터 자신의 단절을 언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³²⁾.

5. 시대적 배경

칼빈이 활동했던 시기 특히 그가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시기는 16세기로서 당시의 체제와 지적, 도덕적 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6세기의 독특한 상황에 처한 독자들에게 칼빈이 말하려고 한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커는 그의 저서³³⁾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종교개혁자들이 관계를 단절한 로마, 즉 과거의 로마와 트레نت 공의회를 통해서 진용을 정비한 로마 진영에는 신약성경을 이단의 책이라고 부를 만큼 반(反)계몽적이었던 사람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황제와 몇 가지 대표적인 교리들만 쥐고서 거기에 충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재세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광신도들, 열광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이들은 잘 정의된 하나의 집단이었다기보다는 로마교회와 국교회 체제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서로 상반된 견해들을 지닌 많은 집단들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구호는 “회복(Restitution)”이었으며, 그들은 동시대인들보다 훨씬 철저하게 성서를 연구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발견하려 했다³⁴⁾.

셋째는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크리스텔러의 말대로 헬라와 라틴 고전들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저술과 사고와 심지어 실천에까지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는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스텝(William R. Estep)이 지적하는 대로 르네상스는 불하르트와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문학운동이었다고 말해서는 안될 만큼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

32) Wilhelm Neuser, Ibid., 46.

33) T.H.L Parker, Ibid., 13.

34) Roland H. Bainton, *종교개혁사(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홍치모·이훈영역, (중판,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1), 91.

었다. 하지만 초기단계에서 문학운동은 주로 고대 헬라와 라틴 고전들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³⁵⁾. 칼빈은 이러한 고전 저자들에게 깊은 애정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원칙을 표방하기는 했지만 인문주의자들의 성경 외적 개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고 보는 파커의 견해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파커의 지적대로 칼빈은 실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문체로 훌륭한 산문을 썼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을 받아들였고,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 같은 다양한 고전철학들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칼빈을 단순히 인문주의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그가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치모도 칼빈이 인문주의적 교양과 지식을 체득했지만 결코 그것을 숭상하지 않았고, 철학을 배웠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동화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³⁶⁾.

넷째로, 극단적인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라블레, 돌레, 데페리에 같은 파리의 자유사상가들과 신 이교주의를 표방한 추종자들이다. 칼빈은 이들을 유럽사회를 위협하는 세력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들로 분류하여 경계하였다³⁷⁾. 특히 루이스 W. 스피츠(Lewis W. Spitz)가 지적하는 대로 당시 개혁에 대하여 반동적 경향을 보이는 반대파의 세력들이 그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그렇다면 칼빈은 로마 진영의 반계몽적인 사람들과 당시를 폄하했던 인문주의자들, 열광적인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아우르는 다양한 시대사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 요소들을 가르치고 세워 나가야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종교 개혁의 연장선상에서만 아니라도 ‘기독교강요’는 이런 절박한 필요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5) William R. Estep, *르네상스와 종교개혁(Renaissance and Reformation)*, 라은성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2), 58.

36) 흥치모, *종교개혁사*, (5판,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46.

37) T.H.L Parker, *Ibid.*, 13-16.

38) Lewis W. Spitz, *종교개혁사(The Reformation)*, 서영일역, (7판, 서울: 기독교선교회, 1994), 219.

제 2 절 칼빈의 성경에 대한 입장

1. 칼빈의 성경관

칼빈의 성경관을 살펴봄에 있어서 존머레이의 연구³⁹⁾가 좋은 지표가 되어 주고 있다. 그는 그동안 성경의 영감에 관한 칼빈의 견해가 17세기 개혁주의 교의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완전축자영감의 고등한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칼빈이 원본성경을 무오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다우이(E.A. Dowey)는 “칼빈의 저서들 중에서 원본성경의 유오성을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고, 칸쩌(Kenneth S. Kantzer)는 “칼빈의 주석들을 조금만이라도 일별해 보면 단번에 누구나 곧 개혁자 칼빈이 얼마나 신중하게 축자적 무오교리를 그의 성경주석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한결같이 칼빈이 성경의 축자적 영감교리를 견지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글리슨 아처(Gleason L. Archer)도 성경은 모든 오류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권위로 충만해 있으며 인간과 그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판단한다고 하였다⁴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 브리그스(Briggs) 박사는 “칼빈의 경우 성경의 무오성은 오류와 양립한다”고 하였고, 두머르그(Emile Doumergue)는 칼빈이 성경의 여자적 영감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을 통해 볼 때 칼빈은 그가 말하고 있는 교리를 성경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율법과 예언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언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구술된 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성경의 저자들이 언제나 신적 충동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떠한 자의적인 말씀도 없다는 것이며, 더우기 성경에 무익하거나 헛된 어떤 것이 있다고

39) John Murrey,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7-49.

40) Gleason L. Archer, “무오성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의 무오설*(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ited by James M. Boice,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45.

생각하는 불경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다만 칼빈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거론되는⁴¹⁾ 구절들(엡2:5, 히9:1, 딤후1:3, 약 4:7)에 대하여 사본상의 와전이나 생략법, 과다법 등의 어학상의 방법으로서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의 성경 원본에 관한 이러한 열심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그의 사상과 분리될 수가 없고 성경은 그 안에 전혀 인간적인 요소가 없으며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과 같다고 칼빈이 말한 것으로 우리의 최종적 결론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칼빈이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역시 케네스 캔저(Kenneth Kantzer)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순종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무오성에 있어서도 그 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키며 진리를 나누기 위해 증거해야만 할 것⁴²⁾이다.

2. 성경의 필요성

칼빈은 기독교강요⁴³⁾ 제 6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자와 교사로 성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모아주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어 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 족장들에게 신탁과 환상이나 혹은 인간의 사역이나 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셨는데,

41)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Tom. IV, Lausanne, 1910, 76.

42) Kenneth Kantzer, “복음주의자들과 무오성교리”, *성경의 무오설(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ited by James M. Boice, 황영철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234.

43) John Calvin,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로고스 번역위원 역, (서울: 로고스, 1987), 51-56.

그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확실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들이 배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명백한 신앙과 모든 인간적인 의견을 훨씬 능가하는 신앙을 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비취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교훈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맞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심어지기 전까지는 그 속에 있는 오류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계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민족은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의 마음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한 도움과 뒷받침이 없는 한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 올 수가 없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허망과 오류 속에 헤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은 칼빈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가운데서 감화를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⁴⁴).

3.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증거

앞서 언급한 머레이의 연구⁴⁵)는 칼빈이 주장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도 좋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머레이는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논의는 성경과 성육신하신 말씀(the Word incarnate)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

44)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사상(The Theology of Calvin)*, Herold Knight 역편, (5판, 서울: 기독교문화사.1992), 29.

45) John Murrey, *Ibid.*, 53-79.

였다. 즉 기록된 말씀(the written Word)과 성육신하신 말씀과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성육신하신 성자가 신적 계시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니젤(Niesel)은 계시의 중심점으로서의 성육신하신 말씀의 중심성에 관한 이 입장은 축자영감교리와 양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 칼빈은 축자적 영감의 해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머레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리 자체로서의 성경과 성육신하신 진리로서의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무오한 성경과 계시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부조화가 있는 것으로 칼빈이 의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칼빈은 성경의 최종성과 권위를 강조하여 주장했으며, 성육신하신 성자 안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거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율법과 선지서 안에 포함된 것과, 사도들의 서신들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육의 방법은 이 말씀의 규정과 규범을 따르는 것에 한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성육신하신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최종성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최종성 사이에는 어떤 부조화도 있지 않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적 영원한 증거인 예수님의 증거에 충실했고, 한편 이 동일한 증거의 함축된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감된 무오한 말씀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의 중심점이란 사실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본체적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실제와 중요성을 확증시켜 준 것은 바로 그의 무오한 말씀이었다. 계시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의 그를 그의 동일성 안에서 만나고 접촉케 하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성경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루터의 생각을 떠나 축자영감의 교리로 나아간다고 말한 브루너의 지적⁴⁶⁾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데, 파커는 그의 책 서문⁴⁷⁾에서 루터가

46)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 of God*, trans. Olive Wy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50), 111.

47) T.H.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John Calvin*), 김지찬 역, (2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2.

사람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우선하나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전제하고,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칼빈은 성경에 대한 그의 견해 속에서 항상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관하여는 칼빈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⁴⁸⁾ 제 7장에서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의 기반 위에서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증거가 될 수 없고 단지 성령의 증거만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성경은 자체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보증을 받고 있으므로 증명이나 논리에 종속될 것이 아니며, 다만 우리가 지녀야 할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을 주어 받을 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결론이다.

칼빈은 또 기독교강요 제 8장⁴⁹⁾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경에 독특한 권위와 감동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성경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고 하였다. 어떠한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강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확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권위는 항상 의심스러운 채로 남아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몰두해 보면 성경에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미덕들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두개의 원리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와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⁵⁰⁾,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유오성을 논증하려 하였지만 칼빈은 변함없이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말하는 오류라는 것들은 단지 사본 상의 와전이나 어학 상의 방법, 기록자의 기호에 다른 차이에서 온

48) John Calvin, *Ibid.*, 57-66.

49) *Ibid.*, 67-81.

50) R. Laird, Harris, *성경의 영감과 정경(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박종철역, (4판,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0), 11.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어느 누구의 증거나 도움이 필요 없이 본래적으로 가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과 같이 들어야 할 것이다.

4.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에 관한 칼빈의 주장에 관하여 맥킴은 그의 ‘칼빈의 성경관’이란 논문에서 그의 용어 사용에 주목하고 있다. 칼빈은 영감에 대하여 영감을 주다 (inspire) 혹은 영감(inspi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님의 입”, “성령의 학교”,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표현 양식을 통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 주고 있다. 칼빈은 인간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에 너무 압도당해서 성령의 확실하고 성실한 서기로서 봉사하여 성령이 부르는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였다. 곧 성경은 그 근원이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구술되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칼빈이 말한 ‘구술’이란 어떤 것일까? 맥킴은 대부분의 칼빈 연구자들이 기계적 구술이라는 개념을 칼빈이 주장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경 기자들을 단순한 꼭두각시나 자동 대필기계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문자 영감설의 추종자들은 칼빈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과 단어 하나하나 모두를 영감 하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인간 기자들의 인격과 정신을 조정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낱말들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술이란 용어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며, 영감의 양태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가 구술의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⁵¹⁾.

그러나 칼빈 자신은 구술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단어와 사고에 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독특한 상황 안에서 신의 가르침,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쉽게

51) Donarld K. Mckim, “칼빈의 성경관”,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61-93.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당신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여 주셨다. 성경에 영감을 주고 오늘날 신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밝히 보여주어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영감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 세계에 영원히 존속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공개적인 서판에 기록되기를 원하셨으며, 선지자들은 후에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로 삼으셨다.

김희보는 칼빈이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영감을 통하여 숭고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신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광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어서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성령의 권위를 떠나서는 성경의 권위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권위에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52) 김희보, “칼빈주의 연구”, *칼빈주의 성경관*, 김남식편저, (서울: 백함출판사, 1972), 22-23.

제 3 장 칼빈의 주해와 설교의 방법론

기독교강요로 대표되는 칼빈은 조직신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설교자였다. 그러나 우리가 칼빈의 설교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는 파커⁵³⁾가 말하는 대로 1549년부터 1564년 사망하기까지의 일뿐이다. 그는 또 콜라동(Colladon)의 말을 빌어 그가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성직을 수행하였던 노용(Noyon)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며, 1520년대 말경에는 부르즈(Bourges)에서 공부하면서 리니에르(Lignires)라는 마을에서 설교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칼빈이 정기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것은 1536년 9월 제네바에 머물기로 한 때라고 하였으며,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된 후 쉬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 있는 프랑스크교회에서는 신약성경 강의를 계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칼빈은 거기서 주일에 네 번의 설교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그리프(W. De Greef)도 그의 저작에서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⁵⁴⁾.

파커에 의하면⁵⁵⁾ 1541년 9월에 제네바로 돌아간 후 칼빈은 더욱 많은 설교를 해야 했으며, 시 공의회에서 “칼빈은 일요일에는 한번만 설교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결의해야 할 정도였다. 1549년 10월부터는 매일 한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으며, 그가 행한 설교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상세한 목록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칼빈은 1549년의 수난 주간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설교하였고, 부활절에는 마태복음 28장을 설교하였다. 1553년과 1554년에 걸쳐서는 요한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서, 그리고 다음 해에는 다시 마태복음에서부터 유월절과

53) T.H.L Parker, *칼빈과 설교(Calvin's Preaching)*, 김남준 역, (2쇄,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85-87.

54) Wulfert,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anslator Lyle D. Bierma, English translation, (Michigan: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 Grand Rapids, 1993) 110.

55) T.H.L Parker, *Ibid.*, 88-94.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를 택하여 설교하였다.

이렇게 계속된 칼빈의 15년간의 설교는 1549년 연초의 일요일에는 히브리서와 시편, 평일에는 예레미야를 설교하였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강해하여 1554년 3월까지 계속하였고,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1550년에 애가를 강해하였으며, 그것을 끝낸 후에 1552년에는 소선지서 8권을, 1554년 2월에 욥기가 시작된 직후에는 사도행전과 시편을 끝내었다.

이후에는 아침과 오후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여 데살로니가전후서를 먼저 하고 디모데전서를 강해하였다. 1554년 4월에는 디모데후서가 시작되었고, 이 즈음에 욥기를 끝내고 신명기를 시작하였다. 디모데후서 다음에는 디도서, 1555년 10월부터 1557년 2월까지의 고린도전서가 설교되었는데, 1556년 7월에는 신명기강해가 끝나고 7월에 이사야서가 시작되었다.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칼빈은 신약성경의 순서대로 강해하여 1559년까지 계속하였고, 그해 7월에 복음서를, 9월에는 창세기를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일요일에는 복음서에 전념하였으며, 평일에는 1561년에 사사기, 1561년 8월부터 1562년 5월까지의 사무엘상, 1563년 2월까지의 사무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을 설교하였다. 칼빈의 마지막 설교는 1564년 2월 2일 수요일에 열왕기상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하였고, 오후 2시에는 에스겔서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하였고, 26일 일요일에 공관복음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다시 강단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칼빈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에 매달렸는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쉬운 점은 그리프(Wulfert De Greef)가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칼빈의 모든 설교가 출판되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이다⁵⁶⁾.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는 칼빈은 설교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수많은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칼빈의 욥기 설교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칼빈이 설교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

56) Wulfert, De Greef, Ibid., 116.

제 1 절 칼빈의 설교관

칼빈의 설교의 중심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증거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칼빈은 설교자가 강단에 서게 되면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만 가감 없이 충실하게 전하고자 하였으며, 성경 안에서 논의 되지 않은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의 설교 입장은 설교의 메시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세환의 저서⁵⁸⁾에도 인용된 에베소서 주석은 칼빈이 생각한 설교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한 사실은 교회는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설교는 인간이 고안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서 기인합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된 목사는 자신의 뜻대로 돌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의해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께서 가르치는 교회의 통치는 사람에게 의해서 고안되지 않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집니다. 그러기에 설교의 직무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설교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침범할 수 없는 제정이시기에 우리들에게는 동의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설교사역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처사는 곧 설교의 제정자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또 거역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가 친히 설교권을 주었기에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 우리가 복음의 사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며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격을 갖추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맡은 바 직책을 다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의 은사입니다. 성도의 참 완성과 완전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형성하는 데 올바르고, 온전하고 또 건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역이야말로 정말로 흠모할만한 것임 또한 신령한 사역이기에 사도는 말씀의 외적인 사역을 수행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은혜의 수단을 경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입는다는 것은 미친 일로 봅니다.”

57) 박세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1), 44.

58) Ibid., 34-36.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란 신적 행위이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가까이 오신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방법으로 대화하시는 것이다.⁵⁹⁾ 여기에 설교자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 자신이 확신 있는 올바른 성경관에 따라 학생이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⁶⁰⁾

1. 칼빈의 설교와 성경

칼빈의 말에 따르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를 성경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 즉,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될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은 반복에 의해 조금이라도 약화되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니어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풀이에 의해서도 퇴색되지 않은 것이었다.⁶¹⁾

칼빈은 본문 말씀을 적용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성경 완성 후의 시대에, 즉 당시의 제네바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사신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하게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권세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²⁾ 칼빈이 설교에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기록의 편집이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살아 있는 말씀이며, 설교는 하나님이 인간

59)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Calvin et Sermon)*, 박건택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94), 64-65.

60) T.H.L. Parker, *Ibid.*, 61-62.

61) 박세환, *Ibid.*, 37.

62) T.H.L. Parker, *Ibid.*, 51-52.

들을 부르시고 소환하시는 것이다.⁶³⁾ 이처럼 강해와 현실적 적용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경 기자들에게 계시되었던 메시지가 교회의 설교를 통해 전해지고, 그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 즉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의 메시지를 주셨던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모든 세대에서 그 메시지의 선언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칼빈은 스토우퍼(Richard Stauffer)가 지적하는 대로⁶⁴⁾ 목사는 신자들에게 좋은 양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강단에 있는 것이며, 이 좋은 양식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웰레이스(Ronard S. Wallace)도 칼빈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여 있던 백성들의 귀에 하늘에서 직접 천둥소리로 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⁶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임을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말씀을 드러내셨다는 것이다. 그는 또 칼빈은 설교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징표로써, 혹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징표로써 언급하였으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수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이행으로서의 전능한 힘을 가졌다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칼빈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선지자나 설교자에 의하여 설교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지금 그 말씀이 청중들에게 선포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였던 것이다.

2. 설교의 구성과 본문의 선택

과거는 칼빈이 각권 첫 번째 설교는 그 책 주제의 전체나 일부를 다루는 것으로

63) T.H.L Parker, Ibid., 54-55.

64) Richard Stauffer, Ibid., 67.

65) Ronard S. Wallace,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243-257.

시작하고 있으며, 원래의 상황에서 주제를 들어내어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을 비취 보면서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도입 설교를 예로 들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호렘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⁶⁶).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결정적으로 집성해야 한다고 결심하였고, 이 책에 확고히 결정된 것처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반복된 율법’이란 뜻인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악행을 꾸짖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멍청한 짓을 했을 때처럼, 또 어린 이들이 1년이나 진도에 진전을 보이지 못할 때 ABC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처럼... 이제 우리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봅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설교의 도입에서는 바로 적용으로 들어간다⁶⁷).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쓴 서신서를 읽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가 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뿐 아니라 영원히 모든 교회 일반에 유용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강해를 시작한 이 서신서는 ...

욥기에서도 칼빈은 첫 마디에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를 확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⁶⁸).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 전체의 대강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쓰여진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그분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본문을 선택할 때 교회력에 맞추거나 아무 데서나 고르지 않았다⁶⁹). 그는

66) T.H.L Parker, *Ibid.*, 114-115.

67) *Ibid.*, 115.

68) *Ibid.*, 115.

69) John Calvin, *칼빈의 욥기 강해 - 욥과 하나님(Sermons from Job)*, 서문강역, (3판, 서울: 지평서원, 2000), 19-20.

통상적으로 성경 전체를 연속적으로 설교해 나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때는 교회의 절기와 상관없이 계속 정한 책을 설교해 나가기도 하였다.

칼빈은 어떤 책의 서두를 길게 끌지 않고 바로 해설로 들어간다⁷⁰⁾. 그가 채택하는 성경 구절의 단위는 단 한 구절에서부터 10절-12절로 된 단락 전체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한 구절에 두세 개를 연속해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가 쓴 주석과 설교의 구절 단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석에서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한 것을 설교에서는 두 개 이상으로 세분한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설교의 도입부 후에 강해할 첫 구절이나 문장을 말하며, 때로는 한 단어의 의미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는 문장이나 구절을 설명해 나가면서 의미를 설명하곤 한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적용을 시도한다. 때로 성경 구절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상황에 관련되고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한 계층에 적용되는 것은 모든 회중들에게 확장된다. 회중들은 이렇게 한 구절씩, 서간이나 예언서, 사건 기사들의 가르침을 인도 받았던 것이다.

3. 성경 해석의 원리와 적용

안명준은 “칼빈의 성경해석학”에서 칼빈 이전의 해석학을 소개하고 칼빈의 성경해석학과 관계의 정리를 하면서 칼빈 자신이 성경해석학의 원리로서 제시하는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론을 어떻게 배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을 자신이 해석한 글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⁷¹⁾. 그는 칼빈에 관한 연구 가운데 그의 성경 해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그의 주석과 방법론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⁷²⁾. 특히 워필드(B. B. Warfield)는 칼빈이 사용한 성서 해석 방법은 완전히 새롭고 경이적인 것으로서 현대적인 해석을 도입했다고 하였

70) T.H.L Parker, Ibid., 117-125.

71)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2-22.

72) 안명준, “해석학”, *최근의 칼빈 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1-66.

다⁷³). 칼 바르트도 칼빈의 주석을 참조할 때 칼빈이 역사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잘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기쁨을 얻었다고 말하며, 칼빈의 주석이 그의 로마서 연구에 도움을 주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⁷⁴). 한편 라이트는 칼빈의 주석이 기독교 학문성의 최고의 업적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가 칼빈의 주석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주석의 학문성, 간결한 심오성, 통찰력의 신선함에 더욱 더 놀라게 된다고 말하였다⁷⁵). 칼빈은 성서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문법적·역사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최근에 칼빈의 해석학 원리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도 칼빈이 사용한 간결성과 용이성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간결성과 용이성의 방법론의 존재를 인정하는 학자로서 김영한⁷⁶), 권성수⁷⁷), 권호덕⁷⁸), 박형룡⁷⁹) 등을 들고 있다.

칼빈의 해석방법의 연구와 더불어서 칼빈의 첫 번째 완전한 주석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⁸⁰)되는 “로마서 주석”을 쓴 파커는 “칼빈의 신약주석”에서 칼빈의 해석 방법론에 관하여 간결성과 용이성의 어원을 수사학자 퀴틸리안의 정의로부터 찾아내었고, 간결한 방법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방법으로 칼빈이 자신의 성서해석에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⁸¹). 한편 갬블은 성서 그 자체가 간결성과 용이성을 사용한다는 칼빈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점이 칼빈으로 하여금 성서 해석 시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였다⁸²).

73)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 (Grand Rapids:Baker Book House, 1956), 9.

74) Karl Barth, *Die Theologie Calvins* (Zürich:Theologischer Verlag, 1922), 531.

75) G. E. Wright, *The Christian Interpreter as a Biblical Critic : The Relevance of Valid Criticism*, Interpretation 1 (1947):133.

76)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현대 철학적 해석학과 신학적 해석학*, (서울: 박영사, 1993), 276.

77) 권성수, *성경해석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139-141.

78) 권호덕, *종교개혁 신학의 내포적 원리*, (서울: 솔로몬, 1998), 334-337.

79) 박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엠마오, 1992), 67-68.

80) Rechar C,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90",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ed., Wilhelm H. Neus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93-94.

81) T. H. 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inberg: T & T. Clark, 1971), 87.

82) Rechar C,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153-165.

안명준은 최근의 칼빈에 관한 연구로서 파레이 교수의 논문을 제시하면서 그는 칼빈의 신학적 해석의 원리로서 적용, 비사색, 명료성, 간결성, 그리고 성서를 성서로 해석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독창적인 학문성과 실제성이 겸비된 칼빈의 해석학 방법에 관한 발표였다고 평가하였다⁸³⁾.

제임스 스티징거는 칼빈의 설교를 강해설교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로마서 서문을 들어서 칼빈이 명료함과 간결함이 해석자의 특별한 자질이 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였다⁸⁴⁾. 특히 파커는 칼빈의 방법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며,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요약하면서 해석자의 첫 번째 자질은 분명한 간결성에 있다고 하였다. 파커는 칼빈의 관심이 명료성과 간결성에 있었다고 단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성경 해석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 그것은 설교자가 성경에 주어진 것을 단순하고, 간결하며, 용감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하게라 함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신자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설교자는 마치 유모가 그의 어린 아이와 함께 말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투른 화법을 쓰시는 하나님의 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결하게라 함은 설교자가 쓸데없는 여담과 수다를 피하고 그가 설명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감하게라 함은 설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인간성에 대해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우물우물 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님께서 그이 교회가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가차 없이 혹은 꾸밈없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⁵⁾.

이에 더하여 설교에는 실천적 적용이 내포되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칼빈

83) B. Farley, "Recurring Hermeneutical Principles in Calvin's Sermons, Polemical Treatises and Correspondence," in Calvin as Exegete, ed., Peter de Klerk,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95), 70.

84) John MacArthur, Jr. and the Master's Seminary Faculty, eds., James F. Stitzinger, "강해설교의 역사", *강해설교의 재발견*(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완역, (1판 2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88-89.

85) Richard Stauffer, *Ibid.*, 68-69.

이 말하는 설교란 성경 메시지만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본문을 한번 정리한 뒤, 그곳에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결과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설교가 성경에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한 후, 언제나 청중들이 고통과 투쟁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행동 지침과 격려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성경을 주해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지 모르지만 청중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가 단순한 교리를 제시하고 이것이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교리와 더불어 권면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4. 설교자와 회중

파커는 칼빈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설교자의 임무와 역할은 그의 신학적인 동기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는데, 설교자는 성경의 메시지의 종이며, 전적으로 성경에 구속된다고 하였다⁸⁷⁾. 칼빈이 말하는 설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가르침’이란 단어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설교’와 동의어로서 당시 로마 카톨릭 시대에서 대부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들을 설교자가 재교육해야 한다는 데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본질적으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그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로서 여겨졌다. 칼빈은 설교를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선생 또는 교사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설교자의 자질에 있어서도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설교의 대상인 회중들의 변화에 따라 이점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⁸⁾. 그는 설

86) Richard Stauffer, *Ibid.*, 69-71.

87) T.H.L. Parker,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2쇄,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59-75.

88) D.M. Lloyd-Jones, *목사와 설교(Preaching & Preachers)*, 서문강 역 (11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160-161.

교를 듣는 회중들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일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실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교가 항상 교훈적 이어서 복음 전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칼빈이 복음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가르침의 요소만을 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파커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⁸⁹⁾. 그는 칼빈이 말한 설교의 서너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삶을 변화시키는 것,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칼빈이 설교에 있어서 당시의 청중을 고려하여 가르침의 요소를 강조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파커는 이처럼 이미 주어진 것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설교자에 대한 칼빈의 관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설교자 자신의 성경관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믿지 않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확신 있게 성경을 설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먼저 학생이 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설교자는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하는 사람이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은 순전히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이라고 하였다. 설교자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존 스타트도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저작에서 설교자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 연구가 포괄적이 되어야 할 것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 읽기를 통해 그 의도를 왜곡하거나 그 도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순수한 열망이라고 하였다⁹⁰⁾.

칼빈에 따르면 설교자의 자격은 첫째 겸손이다⁹¹⁾.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메시지는 주권적이고, 회중과 설교자에 대해 주권적이다. 그의 겸손은 이 권위에 대한

89) T.H.L Parker, Ibid., 73.

90) John, R.w. Sttot, *현대교회와 설교(Between Two World)*, 정성구 역, (중판,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201-203.

91) T.H.L Parker, Ibid., 64-70.

순복에서 나타난다. 칼빈은 설교에서 거의 전부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2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홀로 고고한 영적 수준에서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성경 메시지의 위엄에 복종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스토우퍼도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1인칭 화법을 다루면서 그가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여겼으며, 자신이 신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결코 여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이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⁹²⁾.

칼빈은 설교자의 두 번째 자격은 내적 순복의 외적 실천이라고 하였다⁹³⁾. 설교자는 자기가 회중에게 외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설교자의 세 번째 자격은 용기이다. 이는 믿을 용기가 아니라,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고 책망이 필요하면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설교자의 네 번째 자격은 권위라고 하였다⁹⁴⁾. 이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설교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에 의해 전해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권위는 직접적인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뜻을 선포한다는 사실에 있고, 그 뜻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마치 ~인 것처럼”,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친히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청각적으로 보고 듣는 지각인 것이다.

파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칼빈이 절대적인 권위를 설교에다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악의적이고 오만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충분한 견제장치가 갖추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한 견제장치는 첫째, 설교자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포하신 것만을 전하여야 한다는

92) Richard Stauffer, *Ibid.*, 131.

93) T.H.L. Parker, *Ibid.*, 65.

94) *Ibid.*, 66-68.

것이고, 둘째로는 그는 파견된 대사이지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므로 그 절대적인 권위는 항상 메시지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⁹⁵⁾.

한편 칼빈은 교회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⁹⁶⁾ 사람들은 올바른 정신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선한 목자께서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열망하면서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뿐만 아니라 설교에 대한 태도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성경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와 설교’의 저자인 로이드 존스도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회중석과 강단 사이의 관계가 설교자의 수련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⁹⁷⁾. 칼빈도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회중이 무비판적으로 듣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 설교 내용이 진실로 성경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회중이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다른 말과 구별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임을 지적하면서, 순종과 기다림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한편 칼빈은 회중의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청중은 성령의 메시지만이 강단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설교자와 청중이 공유하는 분명한 목적, 곧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 가운데서 믿는 자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중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을 따라 그들 자신의 반역과 무관심, 그리고 오만과의 일생에 걸친 쉽 없는 싸움을 해야 하며,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5) T.H.L Parker, *Ibid.*, 70.

96) *Ibid.*, 76-82.

97) D.M.Lloyd-Jones, *Ibid.*, 134.

제 2 절 칼빈의 주해와 설교의 특징

1. 칼빈의 설교의 문체

우리 중 누구도 칼빈이 설교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녹화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쇄된 문자에 의존해서 찾아 볼 수밖에 없다. 파커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칼빈의 설교에서 명백성, 힘, 설득력이 세 가지 필수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⁹⁸).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칼빈의 문체를 연구할 때 먼저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그가 퀸틸리안(Quintilian), 키케로(Cicero), 그와 동 시대인 루돌프 아그리콜라(Rudolf Agricola)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링거(Bullinger), 멜랑톤(Melanchthon), 부처(Bucer)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글을 쓰는 데 수사학을 의도적으로 구사한 것이 아니라, 문서를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칼빈은 설교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수사학적인 문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는 단순한 설교체를 사용했다. 이는 그가 설교자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제시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듣는 자로 하여금 회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하고 삶의 길에 그 말씀이 빛을 부어주는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확신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한 설교가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이 설교 중에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피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현학적인 말로 청중을 혼란하게 하기보다 평범한 말로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주기 원했던 것이다. 욱기 설교를 통해서도 칼빈은 청중들에게 평범하고도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국면을 전환하는 다음과 같은 전환문장을 통해 청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한다⁹⁹).

98) T.H.L Parker, *Ibid.*, 177-186.

99) *Ibid.*, 180-183.

- 신자들이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를 봅시다.
- 여기에 좋고 유용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 보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하십시오.
-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모든 비교를 합니까?
- 아직도 주목해야 할 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칼빈은 어떤 부분을 시작하거나 결론을 맺을 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그의 설교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⁰).

-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
- 모세는 이제 덧붙이기를 ...
-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언자가 뜻하는 바를 봅니다.
- 이점에 대해서는 이리합니다.
-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

때때로 칼빈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취해 온 예화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직유법과 은유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대목(욥 37-39장)을 중심으로 설교한 내용들에서 실례를 발견한다. 칼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가다가 내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코 정상까지 올라가고야 말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머리카락을 쭈뼛거리게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내가 책망한다”는 말 대신 “얼굴에 침을 뱉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더러는 짐승들의 생태에서 은유와 직유를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했고,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자기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그의 모든 설교의 마지막에 한결같이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이 한마디로 그의 설교를 통해 청중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¹⁰¹).

파커는 또한 칼빈의 설교 의도는 성경의 각 구절을 강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¹⁰²). 칼빈은 보통 문장을 하나씩, 때로는 구절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해석한다. 그

100) T.H.L Parker, Ibid., 184.

101) John Calvin, Ibid., 76, 96, 117, 137, 161, 183, 205, 226, 250, 274, 297, 321, 342, 369, 394, 417, 438, 460, 483, 506.

102) T.H.L. Parker, Ibid., 179-184.

는 회중에게 이전에 말한 절이 무엇인지 상기시킨 후에, 앞 절을 그 맥락 안에 놓고, 문장 강해를 시작한다. 보통 이것들을 성경 본문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설교해 가면서 직역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의역된 성경 본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강해는 단순한 주석과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정하였다. 성경의 다른 구절과 상충되는 듯한 본문은 먼저 강해한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유익함을 얻고 교화되도록 하였다. 파커는 여기서 욥기 21장 13-15절의 설교를 예로 들고 있다. 이 설교에서 칼빈은 먼저 회중에게 어제 말한 것을 상기 시키고, 각 절의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칼빈은 이 설교에서 각 절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청중에게 교훈을 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칼빈의 설교들은 본문 자체의 구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별한 틀에 박힌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설교에는 어떤 체제나 어떤 멋진 개요를 요약할 수 있도록 조직된 것이 전혀 없다. 설교의 각 부분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테마적인 개념에 묶인 것도 아니다. 한 설교 안에는 하나 내지 네다섯 개의 특별한 개념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개념들이 지극히 보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뚜렷한 사상의 통일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는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분명한 하나의 단계로 삼지는 않았다. 미리 정한 어떤 사상의 순서를 따른 것도 아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이 놓여진 순서를 따라서만 해 나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나 제목을 잡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제까지 무엇을 말했는가 하는 것을 가끔 요약해 줄뿐이다. 그러한 요약은 흔히 서론이나 결론에 가서 나타나는 것이다¹⁰³⁾.

2. 칼빈의 설교의 스타일

파커가 지적하는 대로 칼빈의 설교 스타일은 “친밀한”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다¹⁰⁴⁾. 칼빈은 성경의 메시지를 회중과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친숙하고 소박한 말을

103) John Calvin, *Ibid.*, 26.

사용하였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언제나 친숙하고 쉬운 것이었으며, 아주 드문 경우에만 한 단어를 놓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 다른 방식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끔씩 자신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의욕적이 되어 완전히 다른 단어이면서도 애매하게 발음이 유사한 단순한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커는 마일즈 박사가 지적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칼빈의 설교 중에 마태복음 3장 12절의 “손에 키를 들고”라는 부분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칼빈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van(키)과 vent(바람)의 음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해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점을 부연 설명하였던 것이다¹⁰⁵).

복음이 두 가지 면에서 키와 같습니다. 나는 부는 바람(vent)을 뜻하지 않고, 까부는 키(un van, vanner, crible)를 뜻합니다. 여러 단어를 들면,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칼빈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단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적인 단어는 회중들을 당황하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칼빈은 “성육신”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한다.

또한 칼빈은 많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리고 왜?(Et pourquoi?)”라는 말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¹⁰⁶).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무는 언제나 듣는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이를 혐오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Et pourquoi?) 그것은 그들을 대놓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러면 왜?(Mais pourquoi?)라는 말도 자주 쓰이는데, 이 말은 질문 이라기보다는 감탄사라고 하였다. 이 질문은 진술을 좀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칼빈은 질문 위에 질문을 쌓아 놓는 방식을 사용하곤 했다¹⁰⁷).

104) T.H.L Parker, Ibid., 187-193.

105) Ibid., 189-190.

106) Ibid., 193.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 놓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아담의 자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부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집트의 용광로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닙니까?

박영재는 그의 책에서 수사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조로운 문장 구조를 피하고 청중들의 의식을 사로잡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¹⁰⁸). 설교자는 질문을 통해 강조점을 분명히 하고, 예상된 질문을 끌어내며,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또 다시 말할 때 지루한 감을 없앴과 동시에 의미 전달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설교가 일방적인 독백이나 외침이 되기 쉬운 함정에서 벗어나서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에 동참하게 하는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질문과 응답의 방식과 거부와 대답의 형식이다. 전자는 질문에 대한 확증과 반증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며, 후자는 상상 속의 적대자가 난점을 지적하고 설교자는 설명하는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¹⁰⁹).

질문과 응답의 방식 : 여기에서 선한 사람들과 신자들이 사악한 사람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에서 질문은 거의 불필요합니다....

거부와 대답의 방식 : 자, 여기에서 그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구원을 몹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관계되지 않는 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에서 혹자는 사도 바울이 선민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선택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유산으로 그 사람들을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마음대로 그들의 노고를 효과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칼빈은 한편 직접화법을 사용하곤 하며, 금언이나 격언 같은 지혜의 말을 자료로 삼기도 한다. 그리고 더욱 일반적인 것은 직유이다. 이에 대하여 파커는 다음의 예

107) T.H.L Parker, Ibid., 193.

108)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4쇄,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67-169.

109) T.H.L Parker, Ibid., 193-194.

를 제시하고 있다¹¹⁰).

-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고집 센 말처럼 행동하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당신들이 살찐 말처럼 나를 거부할 때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압니다.
-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발톱으로 인간에게 대드는 야수와 같이 행동합니다.
- 누가 그들을 찌를 때, 그들은 자신들의 독을 품어냅니다. 마치 두꺼비처럼 말입니다.
-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회초리를 때린다고 느껴지자마자 그분에게 반항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재갈 풀린 말이 마부를 내던지고 하가 나서 거의 미쳐가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위해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모세는 타는 불꽃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칼빈의 모든 이미지들은 단순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동물의 이미지로서 그의 단순성과 친숙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또한 고사성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소박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그가 사용하는 이미지나 말 속에는 그의 유머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무지에 자신을 맞추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성과 명백성이 있고, 해학과 힘, 정렬과 진지함이 들어 있었다. 그는 상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설교자였던 것이다¹¹¹).

3. 칼빈의 설교의 내용

라이드(Clyde Reid)는 ‘오늘날 우리의 설교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미 귀에 익은 부르짖음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¹¹²). 그에 의하면 오늘날의 설교가 모든 인간들의 번덕스러운 일과 걱정거리들을 취급하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우리 설교자들만이라도 하나님

110) T.H.L Parker, *Ibid.*, 194-197.

111) *Ibid.*, 198-199.

112) Clyde Reid, *설교의 위기(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36-37.

의 말씀을 고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가장 큰 공헌의 하나는 그가 성경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실제로 성경 전체를 설교했으며, 성경만을 설교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될 수 있다. 이근삼의 지적대로 칼빈의 설교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³⁾.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칼빈의 이사야 설교의 한 대목으로서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부활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¹¹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당분간은 수치스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를 향한 믿음의 문을 닫지 말고 더욱 더 전심으로 그를 믿음으로써 마지막 세상의 끝이 어떤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 죽음과 부활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두르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으나 디모테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1장에서조차도 바울이 말했듯이(딤후3:16, 고후13:4, 롬1:4)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셨다. ... 요약컨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올라가야 하겠다. 그 때에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구하고, 그의 당한 저주 가운데서 그의 자비를 구하고, 그의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고난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구하고 그가 당한 모욕에서 우리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칼빈은 신약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다만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만 볼 수 있었던 그리스도를 명백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팔복설교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⁵⁾. 우리의 구원이 소망 안에 있다면

113)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27.

114) 김동현, *칼빈의 이사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2), 43-45.

115)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Calvin et Sermon), 박건택 역, (서울: 성서연구사,

우리의 구원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모든 소유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가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칼빈의 신약설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¹¹⁶).

한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휴식을 제공해주실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많은 대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을 거느리고 있고 또 이들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뺏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의 광명을 견딜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들 위에, 마치 자기 자녀들 위에 있는 듯이 그렇게 지배하고 계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싸움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과 또 심지어는 신자를 가장하면서 마치 하나의 같은 종교로서 우리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필사적인 전투를 반드시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분노하게 하고 복음이 세상에서 멸절되기를 원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 비록 우리가 유순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정의와 공평함에 대해 열정을 가진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거스려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들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 열심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취급되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¹⁷. 구약성경 주석에서 칼빈은 성경 저자를 성육신 이전의 특별한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기하고 있는 것의 완성을 모르는 것으로 강해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메시아적인 구절들은 메시아니즘적으로, 즉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비추어 해설되었다. 어떤 사람들이나 제도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로 해석한다. 그 역시 구약성경 언어를 자기 식대로 해설했으며 이를 확

1994), 200.

116) Richard Stauffer, *Ibid.*, 249-250.

117) T.H.L. Paker, *Ibid.*, 126-127.

증하기 위해 신약의 저자를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성육신 이전에 살았던 역사적 맥락에서 저자들을 취급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모든 구약의 설교를 기독교 신앙의 상황 안에서 적용하기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칼빈은 설교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며, 우리의 필요에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는 분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는 분으로 드러내고 있다¹¹⁸⁾. 더 나아가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위엄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칼빈이 생각하는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의와 지혜와 권능을 생각하면 전에 우리가 즐거워 하던 것이 가장 큰 죄악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¹⁹⁾. 칼빈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청중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4. 칼빈의 설교의 성격

박세환은 칼빈의 이사야 설교를 통해 그의 설교의 성격을 일곱가지로 정리해 놓았다¹²⁰⁾. 첫째는 칼빈의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이다. 칼빈은 계시 의존적인 신학사상에 따라 철저하게 성경의 영감설에 기초하는 성경해석자였다. 따라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유지시키며 또한 통치하시는 능력을 확신하는 하나님 주권적인 성경신학과 하나님 중심적인 섭리신학에 토대를 둔 설교를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칼빈의 설교는 강해설교이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직 성경만(Scriptura Sola)을 성경 전부(Scriptura Tota)를 설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연속설교이다. 그는 성경 전부를 연속해서 설교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넷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이다. 성경 전부를 설교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예

118) T.H.L. Paker, Ibid., 132-134.

119) John Calvin,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로고스 번역위원 역, (서울: 로고스, 1987), 3-9.

120) 박세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1), 174-184.

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로 보았던 것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와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적인 해석과 설교와 정반대되는 것이며,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은 다른 내용이 덧붙여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된다고 하였다¹²¹⁾.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란 하나님의 일들을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본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 것 자체의 범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인 정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총만함으로부터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성구도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칼빈이 성경에서 본문을 취하여 설교할 때에 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¹²²⁾. 다섯째로 칼빈의 설교는 원고 없는 설교이다. 그는 뛰어난 영적 적응력을 통해 설교자 자신과 설교를 듣는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칼빈의 설교는 변증적인 설교이다. 이는 성경을 불신자들 앞에서 이론적으로 변증하는 정신과 의지가 그의 설교 가운데 반영된 것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칼빈의 설교는 복음 전도 중심의 설교이다. 그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을 설교자의 주된 직무로 보았던 것이다.

한 마디로 칼빈의 설교는 성경 전체를 연속하여 강해하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며, 변증적이고, 원고 없이 하는 복음 전도 중심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1) Sidney Greidanus,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김영철 역, (서울: 여수문, 1995), 229-230.

122)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4), 314.

제 4 장 칼빈의 욱기 주해와 설교

본장에서는 칼빈의 욱기 설교의 본문의 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의 성경해석과 설교에 대한 이해가 실제 설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칼빈의 욱기 설교를 분석하고, 칼빈의 욱기 설교의 성격과 중심점을 알아보았으며, 욱기의 중요한 주제인 고난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칼빈의 욱기 설교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칼빈의 설교 원문을 가지고 다루지 못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된 설교라도 가지고 칼빈의 설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욱기 설교 분석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서문강의 “욕과 하나님”의 본문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칼빈의 더 많은 설교들이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 1 절 칼빈의 욱기 설교 분석

1. 욱1:1의 설교

칼빈은 욱기의 첫 번째 설교라 할 수 있는 욱1:1¹²³⁾의 설교에서 욱기 내용을 통해 참된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욱기의 윤곽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욱기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파커도 칼빈의 욱기 설교에 있어서의 첫 마디가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를 확실히 나타낸다고 평가하고 있다¹²⁴⁾.

칼빈은 설교 가운데 구약의 에스겔(겔14:14)¹²⁵⁾이나 예레미야 애가(애4:21)¹²⁶⁾

123) 욱 1:1 우스 땅에 욱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24) T.H.L. Parker, Ibid., 115.

를 인용하였고, 아울러 신약의 바울서신(엡6:12, 고전3:10)¹²⁷과 야고보서의 권면을 언급하고 있다(약5:11)¹²⁸.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까지 확대하여 연결시키고 있다. 칼빈은 설교의 모두에 본문을 포함한 율기 전체의 윤곽과 주요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구약성경의 진술과 신약성경의 가르침과도 연결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까지 연관 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율기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실존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기의 이해를 위해 당시의 시대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헬라어나 라틴어의 번역본을 들어서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쓴 흔적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 청중들에게 시각적인 언어를 들려주어 율기의 이야기의 교훈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음의 예가 그것이다.¹²⁹

사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이 목표에 도달할 정도로 순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나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가는 사람은 언제나 약하고, 다리를 끌며 자기들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죽을 몸에 둘러 싸여 있을 동안에는 역시 그러합니다.

한편 칼빈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청중에게 필요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파커도 칼빈의 설교에서 적용은 보통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때로 성경 구절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상황에 관련되고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¹³⁰. 설교의 모두에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125) **겔 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126) **에 4:21**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돤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127)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 **고전 3: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28) **약 5: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율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129) John Calvin, *Ibid.*, 68.

130) T.H.L. Parker, *Ibid.*, 123.

부분은 일반적인 적용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³¹⁾.

여기에 쓰여진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모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당연히 그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부분에서는 외식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¹³²⁾.

... 그러한 사람들은 이웃과 관계하자마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한 이익을 추구할 힘이 있을 때 자신들을 제어하는 양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자신들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자기들의 이익과 유리한 조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외식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청중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흠에서 정결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³⁾.

...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의 본을 따라 그러한 모든 악의 공략에 맞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불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악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을 수 있는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흠에서 정결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설교 모두에서 욕기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조종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의무는 모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복

131) John Calvin, Ibid., 56.

132) Ibid., 71.

133) Ibid., 75-76.

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대로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도 마땅히 마음에 두고 기뻐해야 하는 그 영원한 행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2. 욥1:20-22의 설교

칼빈은 본 설교에서 인내라는 위대한 덕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할 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먼저 ‘인내’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¹³⁴).

자, 이 대목은 성경 중에서 ‘인내’라는 말이 함축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탁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할 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배웁니다. ... 그와 같이 ‘인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마취당하여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 슬픔을 갖지 않거나, 어떤 환난을 겪을 때 마음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오히려 자신들을 제어하고 통제하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고뇌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하는 지점에서 자신을 지킬 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같이 동조할 수 있고, 여기서 욥이 하듯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롭다는 결론을 내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정욕과 맞서 싸울 때, 인내의 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욥이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 동방의 풍습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거룩한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며, 자기의 마음 밑바닥까지 극심한 고뇌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134) John Calvin, *Ibid.*, 78-79.

칼빈은 계속해서 청중의 생각을 이끌어 가며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청중은 더 이상 욥의 이야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청중을 향하여 ‘내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겸손은 회개의 표증이며, 환난은 우리를 겸손케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권면을 제시하고 있다(고후 7:10)¹³⁵. 그리고 욥이 몸은 땅에 엎드렸으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셔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들과 풍부로 옷 입고 있을 때 탈취당하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상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도로 찾을 수도 있다는 대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설교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결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⁶.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뻔뻔하게 모독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여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원하실 때에는 그것을 도로 찾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궁극적인 적용을 부여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 우리는 그 말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감상에서 나왔는지도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위선이 없고 진실뿐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소원과 전혀 상반되는 것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까닭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것처럼 안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어떠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결론을 내린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찬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하시는 일은

135)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36) John Calvin, *Ibid.*, 92-94.

하나도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놀랄 만한 공의와 선하심과 무한한 지혜로 행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우리가 시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될 때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다음은 칼빈이 내린 결론적인 권면이다¹³⁷⁾.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확신할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칼빈은 한 가지 유보하고 넘어가며 다음으로 미룬 것이 있다. 그것은 욕이 하나님께서 도적들을 통해서 욕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아 가신 것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칼빈은 다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는 칼빈의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단순성과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설교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여, 자신이 강조하고자 한 점이 흐려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도록 단순화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욕5:17-18절의 설교

칼빈은 이 설교의 모두에서 지난 설교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함을 선포하였다고 환기 시키면서 그가 첨가한 교훈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와 권능과 지혜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 가까이 나오라는 진지한 경고라고 하였다. 칼빈은 징계를 저주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137) John Calvin, Ibid., 95.

다는 하나의 표증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표증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증거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나타내시고 싶은 사람들도 징계하시지만 패역자를 징벌하시고, 패역자로 하여금 더 큰 정죄에 빠지도록 하신다고 하면서 청중들을 구약의 바로에게로 인도하고 있다¹³⁸⁾.

‘바로’가 맞았던 때는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핑계 댈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바로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로의를 경우를 예로 들어 징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악인은 징계를 받을수록 더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 아래서의 겸허는 자녀들만 가지는 특권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도 자기들의 악한 생활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시편 32:9¹³⁹⁾에 나타나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다루기 힘든 말로 묘사하고, 청중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탄식¹⁴⁰⁾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에로 청중을 인도하고 있다¹⁴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를 느끼거든, 우리의 범죄를 생각하고 스스로 불쾌하게 여기는 법을 더욱 더 배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들을 아뢰며 슬피 하고, 그의 긍휼을 피난처로 삼는 법을 더 배우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은 청중을 다시 신약 히12:11의 가르침¹⁴²⁾으로 인도한다. 그

138) John Calvin, *Ibid.*, 101.

139) 시 32: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140) 암 5: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41) *Ibid.*, 104.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를 거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겸손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이다. 이제 칼빈은 청중을 로마서15:4의 말씀¹⁴³⁾과 고전10:13의 말씀¹⁴⁴⁾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인내를 통해 결국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징계의 의미와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였으며, 결정적인 성구인 시편119:67¹⁴⁵⁾을 제시하면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하며 결론으로 맺는다¹⁴⁶⁾.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참아내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시다. 잘 하라는 권면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떠한 사람도 자신 속에 많은 악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없으며, 바로 그 악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환난의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치료될 수 없는 많은 참화임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것처럼 강박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증을 보여 주시자마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굳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을 긍휼 가운데서 받아들이실 때 그의 은혜를 높이고, 우리가 지독하게 우둔하지 않다면 그것을 지각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그 은혜

142) **히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43)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144)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5) **시 119: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46) John Calvin, *Ibid.*, 116-117.

를 깨달아 찬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4. 욥9:1-6절의 설교

칼빈은 본 설교의 모두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께는 조금도 흠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다. 칼빈의 설교하는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칼빈이 본 설교에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다루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까닭은 언제나 하나님은 의롭고 흠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빌닷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논증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 징벌하신다는 진술로 논증을 끝마칠 때는 빈약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들도 아끼시고 지키시며,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실대로 징계하신다고 간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빈약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욥은 지금 빌닷이 한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잘 말해 주고 있으며, 빌닷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더 잘 말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설교에서 칼빈은 구약을 뛰어 넘어 바로 신약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이 경계를 받도록 “하나님은 죄인들을 판단하신다.”(롬2장, 살후1장)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¹⁴⁷⁾.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것이 보편적인 법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높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더라도 언제나 의롭다고 해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47) John Calvin, *Ibid.*, 121.

이제 칼빈은 욥이 말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는 말씀의 설명을 시도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고, 무엇인가 걸려 넘어져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비방하면서 칼빈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고도 자기 공로로 돌리는 교황주의자들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⁸⁾.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이 더 이상 논박하지 못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쉬지 않고 판단하시되,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 만일 우리의 덕행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하도록 합시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여기 이 세상에서만 국한시켜 말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어떠한 재판장인지 알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한다면 금방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던지움을 당할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을 하고 있다¹⁴⁹⁾.

우리는 여기서 욥이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변론할 소양이 많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 기억 속에 더 잘 명심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효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천 마디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뽑아 보아도, 자기의 죄를 진정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다윗(시19:12)¹⁵⁰⁾과 같은 수준에 있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라

148) John Calvin, Ibid., 124-125.

149) Ibid., 127.

150) 시 19: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는 것이다.

칼빈은 말씀의 적용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대로 “우리는 ... 잘 주목합시다.”, “우리는 ... 소원해야 합니다.”라는 표현 외에도 “우리는 ... 합시다.”, “우리는 ... 해야 합니다.” 등의 1인칭 복수형의 표현을 통해 칼빈 자신도 말씀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¹⁵¹⁾.

- 그러하기에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임을 온전히 확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것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다.
- 그러니 그러한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 더 나아갑시다.
-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합시다. ... 정말이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분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이 보편적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결국 우리는 종교의 선고를 받기 위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겸손한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열납하시려는 방편이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와 연관 짓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하고 충분한 공의를 발견하고,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납받으며, 그 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복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한다는 것이다.

5. 욥13:11-15절의 설교

칼빈은 “우리가 앞에 시작한 진술을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설교는 지난 설교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재론하며 성경이 그에 대하여 무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고 있다¹⁵²⁾.

151) John Calvin, Ibid., 134-137.

- 실로 성경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 그러니 성경의 순전하고 단순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칼빈의 다른 율기 설교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율9:1-6의 설교에서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였고, 율16:1-9의 설교에서는 “사실 성경은 시편 7:15과 이사야 59:4의 말씀과 같이 그런 식의 논리를 자주 사용합니다. ...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뿐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칼빈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성경이 무어라고 말씀하는지를 통해 대답하기를 원했으며, 그것도 하나의 본문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대답하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이 설교에서 그의 성경 해석상의 단순성과 간결성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칼빈은 우리와 교황주의자들 사이의 틈을 매워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요점을 흐리려 드는 자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평계 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복음이 세상에 너무 과격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혼합시켜 공교하게 꾸며 만든 것은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거나 섬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한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의 단순성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¹⁵³⁾.

- 우리는 가감 없이 복음의 순전한 단순성을 따라야 합니다.
- 우리는 순전하고 단순하게 행해야 합니다.

한편 칼빈의 설교 형태가 늘 그러한 것처럼 특별한 결론을 맺으면서 적용을

152) John Calvin, Ibid., 139-140.

153) Ibid., 140, 143.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과감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¹⁵⁴).

우리는 순전하고 단순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그가 말씀하실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살펴봅시다. ...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맙시다. ...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과 미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니이까?”라고 말합니다. ...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놀랍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도록 합시다. 그래야만 모든 겸손과 진지함으로 연단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누구인가를 시험해 봅시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자신을 높이도록 부추겨,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빠져들고, 우리 자신의 자만으로 서기를 추구하려 할 때, 우리 자신을 깨우쳐 이렇게 말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읍시다. 먼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것처럼 지독한 환난을 보내사 우리가 삼키운 것처럼 되었다면, 그래도 그것을 절망의 원인으로 삼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공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견뎌냅시다. ...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각자를 살펴봅시다.

칼빈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분해 내심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측정해 보려 해도 불가능하며, 오직 겸손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도록 해야만 모든 겸손과 진지함으로 연단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내 생명을 내 손안에 두겠느냐”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것을 칼빈은 욥이 교황주의자들을 비롯한 어리석은 자들과 비교되는 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말씀 위에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구축하려 한다

154) John Calvin, *Ibid.*, 143-144, 147, 154, 155.

고 지적하면서 사사기6:13절의 말씀¹⁵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통이라고 말씀한다.

칼빈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를 해석하는데 그의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를 사용하고 있다¹⁵⁶⁾.

히브리어 ‘로’라는 말이 ‘아닌’이라는 뜻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번역해도 의미는 바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적으로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속에서는 통상적인 용례로, 한 글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은 어쨌든 같습니다. 우리가 ‘아닌’으로 읽는다면 그 말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다. 나는 소망을 가질 것이다.”라는 의문형식으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의뢰하라”라고 읽는다면 주체가 바뀝니다.

칼빈은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다만 우리를 지켜달라고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만 환난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과 이 현실생활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리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6. 욥14:13-15절의 설교

칼빈은 본 설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칼빈은 먼저 이 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 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한 사람들은 산 속에 숨으려 할 것이고, 산이 자기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155) **삿 6: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56) John Calvin, Ibid., 155.

사야 2:19¹⁵⁷⁾을 배경으로 한 말씀으로 보인다. 칼빈은 이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23:30의 말씀¹⁵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바보스러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됨을 보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에 대하여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칼빈은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욕의 진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심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특히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구절에 관심을 집중한다. 여기서 ‘기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심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조건 매우 비참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한 가지 요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신다¹⁵⁹⁾.

여기서 칼빈은 청중을 자연스럽게 다음의 구절로 이끌어 간다. 거기서 우리는 회의와 착각을 끝없이 주입시키는 사단의 책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그것이 우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악한 공상이라고 밝혀 주고 있다¹⁶⁰⁾.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악한 공상적인 생각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

157) **사 2: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158) **눅 23: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159) John Calvin, *Ibid.*, 164-168.

160) *Ibid.*, 169.

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가 너를 버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계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들을 공략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겸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단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헝스텐베르그는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사단을 필요로 하시며, 사단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는 그를 남겨 두신다고 하였을 것이다¹⁶¹⁾. 하지만 칼빈은 사도바울이 말하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를 상처 낼 정도로 우리 영혼에 박히지는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므로 그것들을 즉각 격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그만 실수를 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욥이 당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불신앙에 빠질 많은 기회를 제시할 때 믿음의 진정성이 검증되며, 우리 믿음의 참된 시금석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욥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것처럼 정신이 얼얼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한편 칼빈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이까”라는 욥의 말을 해석하는 데, 자주 자신이 그렇게 하는 대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욥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¹⁶²⁾.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셨는데, 주께서는 그 소망에서 저를 배제시키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처럼 혹독하게 대하시니, 주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이 이상한 행사가 나를 완전히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멸하시면 누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욥은 “

161) Ernst, Wilhelm, Hengstenberg, “욥기 해석 (Interpreting the Book of Job)”, (Commentary on Ecclesiastes, 1869), *구약신학논문집(제1집)*, 윤영탁 역편, (8판, 서울: 성광문화사, 1995), 87.

162) John Calvin, *Ibid.*, 173.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회복시킬 의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수에 칠 가지도 없는 존재로 만들려 하시는가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의 상상은 계속해서 전개된다¹⁶³⁾.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처해 있는 내 신세가 얼마나 곤고한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황망한 상태에서 인생을 끝마칠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방법으로든 나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스리시고, 나를 멸하시려 하시는 이 마당에서 무엇을 말하랴?” ... “내 이 고통의 때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무덤에 나를 감추어 놓으시고 나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시고, 산들이 내 위에 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내가 당한 이 환난의 고통 속에서마저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비록 그 환난이 어렵고 참아 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는 오는 법, 그 사실은 분명히 내게 위안을 주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부추긴다.”

칼빈은 이제 욥의 말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매우 훌륭하고 유용한 교리를 추출해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공략을 받고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산란하며, 특히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다툼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 속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욥의 다음 말을 그러한 시도로 인정하고 있다. 욥이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기다렸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이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온 원수의 접촉을 재빨리 끊어버린 것이었다고 본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속에 들어온 부패가 완전히 박멸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불멸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변화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여기서 그의 중요한 해석의 원리를 한 가지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그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163) John Calvin, Ibid., 174, 175.

었다는 것이다¹⁶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중에서 마지막 날 새롭게 될 것을 가장 생생하게 비취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경이 말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칼빈은 또한 ‘모든 날 동안’이란 말에 주목하면서 이 말을 잘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많은 환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날 동안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하루나, 한 달 동안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소망을 가져야 함을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제 칼빈은 마지막으로 욥이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결론을 맺고 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움츠리지 않으며, 오히려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고, 우리에게 성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그를 부르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맛보게 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소망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7. 욥19:17-25절의 설교

칼빈은 본 설교에서 하나의 논점을 조화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164) John Calvin, *Ibid.*, 178.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중간에 서 있는 욕을 통해서 이야기 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¹⁶⁵⁾.

각자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웃을 도와주며, 우리가 더 이상 좋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서로를 붙잡히 여기게끔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합시키셨습니다. ...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자기 가정과,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갖도록 정해 주셨고,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만 살겠다.” 라고 말하면서 공동생활에서 자신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보여주지 않고, 다만 우리를 향하여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만 있다면 그 시험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이다. 욕이 바로 이 대목에서 자기 아내나, 친구나, 자기 집의 종들마저 자기를 붙잡히여가지 않고 온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부터 물러서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주어졌다. 우리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들로부터 우리가 격리되도록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욕을 우리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것처럼 그를 훈련시키셨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예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편 41:9의 일¹⁶⁶⁾이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났으며, 예수께서는 당신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걸을 때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한편 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165) John Calvin, *Ibid.*, 206, 208.

166) 시 41:9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성경의 문장을 문맥과 떼어서 취급한다면 결코 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문맥 안에서 문장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본 설교에서의 ‘구속자’라는 표현에 그리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욥이 지금처럼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말한 욥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말한 것은 욥이 사람들 앞에 그의 사정을 말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할지라도 외식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칼빈은 욥의 말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⁶⁷⁾.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장을 문맥에 떼어 취급한다면 결코 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윌리엄 헨리 그린의 지적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안다¹⁶⁸⁾.

육체의 부활은 아마도 욥의 생각에 들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무덤에서 모두가 동시에 부활한다는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록 썩는 상태이기는 하나 우리 영혼의 계속적인 존재 문제와 연결되고, 또 우리가 현 상태에서 유추한 존재에 관한 개념들을 더 광대한 내세로 옮겨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요하다. 따라서 부활의 교리에 대한 씨앗이 본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청중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의 표현은 ‘~합시다’, ‘~하지 맙시다’의 형식을 띠고 있다¹⁶⁹⁾.

167) John Calvin, *Ibid.*, 225.

168) William Henry Green, *욥기이해 (The Argument of The Book of JOB Unfolded)*, 윤영탁 역 (서울: 엠마오, 1993), 113.

169) John Calvin, *Ibid.*, 226.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 ‘하늘 심판장’ 앞에 나와서,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 하늘 심판장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겸비한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 역시 칼빈이 즐겨 사용했던 1인칭 복수 화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칼빈 자신도 청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사함 받은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8. 욥19:26-29절의 설교

칼빈은 본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 지난 설교를 소개하면서 설교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욥은 단언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다¹⁷⁰).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욥이 한 단언을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끝자마자 진리를 통해서든 거짓을 통해서든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오직 외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본 설교를 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이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는 위선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욥의 처지는 이제 청중에게 이입되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지

170) John Calvin, *Ibid.*, 227-228.

금 욱의 처지에 있는 청중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¹⁷¹).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됩니다. ... ~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 우리가 보다 더 잘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면, 욱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힘이 조금씩 쇠약해지고 사그라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썩을 정도로 괴롭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욱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계속해서 칼빈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말하는 욱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전과같이 회복된다면, 여전히 내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욱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지금 아무 것도 아니다. 내 생명은 급속하게 사그라져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강력한 능력을 선언하실 것이므로 내가 그를 볼 것이다.”고 말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은 청중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¹⁷²).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울을 보고 실체를 발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지 않을 영광에 단번에 참여할 것을 의심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이후에 사는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성령의 모든 권능이 그 안에서 드러나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생각하기 위해 멀리까지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훌륭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것처럼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신 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칼빈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

171) John Calvin, *Ibid.*, 232-233.

172) *Ibid.*, 235-239.

다. 그는 이제 중요한 말을 다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웃의 채찍 맞는 것이나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부연하고 있다. 칼빈은 채찍 맞는 이웃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정죄하라고 말한다. 징계의 사유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므로 남의 고통을 유희로 삼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쌍한 자를 괴롭히면 그의 보호자가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도와 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탄식하는 대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칼빈의 욕기 설교의 특징

1. 칼빈의 욕기 설교의 성격

서문강은 그가 번역한 "칼빈의 욕기강해-욕과 하나님"의 서문¹⁷³⁾에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 시기의 설교자들은 초대교회의 교훈과 실제로 돌아가려 하였고, 그들의 설교 방법은 강해설교였다고 말한다. 그들의 강해설교는 조직적으로 짝 짜여져 있었다기보다는 자유롭게 흘러나온 것이었으며,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분석적이었고, 논리적인 교묘함으로 전달되기보다는 분명한 진술로 표현되었으며, 수사학적이기보다는 회화적이었던 것이다. 칼빈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진술방식으로 전달되었고, 그의 조직적인 글들과는 전혀 다른 짜임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설교의 뼈와 살을 두 요소에서 취했는데, 그 하나는 본문 자체를 담고 있는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문맥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중들의 영적인 필요였다. 서문강은 칼빈이 설교에서 본문을 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는

173) John Calvin, Ibid., 21.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예로서 욥기 9:1-6의 본문에 의한 설교를 들고 있다¹⁷⁴). 이 본문은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시작하는데, 설교자로 하여금 칭의 교리와 그리스도 공로의 전가 교리를 크게 다루도록 유혹하지만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마지막 몇 문장에서만 그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분토더미 위에 있는 욥을 계속 생각하며 사람들을 그러한 궁핍한 체험 속으로 이끄는 데, 욥의 고전적인 말 “내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안다”는 말씀을 다룰 때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이 함축하는 것을 깊게 다루고 있지 않음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욥이 그런 것을 예기치 못하였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본문을 그렇게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이 사람들의 판단을 능가한다는 욥의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만일 이 본문을 문맥을 떠나 다룬다면 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욥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칼빈은 욥기 19:26-29절의 본문을 다루면서 종말론의 교리에 몰입되거나 몸의 부활 교리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¹⁷⁵), 인상 깊게 욥과 욥의 체험을 겪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있음도 주목한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칼빈은 본문을 다룰 때에 어떤 것이든 교리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청중에게 어떤 점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174) John Calvin, *Ibid.*, 22.

175) 이에 관하여 Rudolph E. Honsey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의 말씀을 고찰할 때에, 여기에서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 그러므로 욥이 그의 구속주 곧 친히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분께서 그를 영생으로 일으키실 그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알았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확고하게 소망하였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이것이 그가 19장 23-27절에서 말한 것임을 고금을 막론하고 유능한 성경학자들이 믿어 왔다. 제롬이 욥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번역하였고, 루터가 그러하였고, 거들스톤, 매튜 헨리, 스펙하르트, 퓨에르브링거, 크레추만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러하였다 ... / Rudolph, E. Honsey, ”욥기 19:23~27에 관한 주석적 연구 (Exegetical Paper on Job 19:23~27)“,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1950, 153-206, *구약신학논문집(제7집)*, 윤영탁 역편, (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4), 129.

서문강은 또한 칼빈은 본문 속에 들어 있는 주요한 요소의 분량에 따라서 설교를 결정하거나, 그 본문 속에 나타난 제일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¹⁷⁶⁾. 그 예는 욥기 32:1-3의 본문을 다룬 설교이다. 이 본문은 엘리후에 대한 두 가지 요점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그가 우스 사람이며, 분개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회자로서의 칼빈은 자기의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적용을 하고 있다. 당시 칼빈은 예정론 교리와 아울러 그 예정론이 함축하는 요점들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특히 신앙적으로 자유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과의 투쟁이 가장 맹렬하였는데, 칼빈은 여기에서 두 가지 실제적인 요점을 비교할 좋은 기회를 발견했던 것이다. 엘리후는 욥과 같이 약속의 혈통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진정한 경건을 보였다. 이러한 욥이나 엘리후 같은 사람들의 경건은 악하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비난하는 자들의 공정치 못한 처사에 맞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했다. 또 한 가지는 엘리후의 의로운 분노 문제이다. 이를 통해 육신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거룩한 의분이 아주 정당하며, 교황주의자들이나 자유사상가들과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신자들이 백안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하기에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가차 없이 현실에 적용하는 용기를 나타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칼빈의 욥기 설교의 중심점

도널드 맥두걸은 강해설교를 하는 데에는 고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특히 본문의 중심 주제와 아우트라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하였다. 그는 설교의 중심 주제는 본문 안에서 기술되기도 하고, 보다 넓은 문맥에서 표시되기도 하며, 반복되는 개념에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문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를 설교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진정한 강

176) John Calvin, *Ibid.*, 23-24.

해설교의 중심 주제는 성경 저자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⁷⁾.

그렇다면 칼빈이 욥기의 설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칼빈의 욥기 설교에 나타나는 중심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섭리의 문제는 욥기 설교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⁸⁾. 욥은 하나님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알고 씬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고, 사람의 애를 태우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섭리와 보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되 통일성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창조와 구속, 곧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와 구속 가운데 드러난 섭리를 힘 있게 전하는 설교자였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점은 계시된 뜻이라기보다 계시되지 아니한 뜻이며, 칼빈의 설교에는 이러한 관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욥기 설교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다. 칼빈은 신적 주권의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추상적이거나 교의적인 것만 아니었다. 그것은 은혜와 구별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복음이었다. 칼빈의 설교 곳곳에 나타나는 은혜의 개념은 역동적인 개념으로서 말구유나 십자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편재된 것으로서 창조와 구원의 과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다¹⁷⁹⁾.

3. 칼빈의 욥기 설교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이해

욥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티프는 고난이라는 코드이다. 고난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

177) John MacArthur, Jr. and the Master's eminary Faculty, eds., *Ibid.*, 321-325.

178) John Calvin, *Ibid.*, 43-44.

179) *Ibid.*, 50-51.

인시켜 주었고, 그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한층 더 더해 주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풀무에 단련 받는 금과 같이 단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¹⁸⁰⁾ 신앙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언제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코드를 바로 읽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자.

·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 119:67)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탄식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고난의 강을 건너면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조상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티프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징계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사단의 참사로 비롯되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한 사람은 못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오해를 시정시켜 주셨다. 고난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대면하여 만나 주셨던 것이다.

신앙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때때로 징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아담은 범죄 이후 낙원에서 추방되었다(창3:24)¹⁸¹⁾.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접

180) 욥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181)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게 되었다. 그의 심적 고통은 참으로 컸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살해한 가인 역시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창4:12)¹⁸².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떠한가?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사람의 보고를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묵살되었으며,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내 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민14:33)¹⁸³. 다윗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윗은 충성스런 부하를 교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얻은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다(삼하12:19)¹⁸⁴. 그리고 그의 범죄행위의 열매를 자녀들에게서 거두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은 때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 갓은 고생을 하였다(창37:28)¹⁸⁵.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으나 오히려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창39:7-23)¹⁸⁶. 그러나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창41:37-45)¹⁸⁷. 그의 고난은 분명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산파들의 기지로 위기를 넘겼고, 강물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그의 부모가 숨겨두어 살아났다. 마침내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 발

182) **창 4:12**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83) **민 14:33**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84) **삼하 12: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할 엄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185) **창 37:28**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86) **창 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187) **창 41: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견되어 다시 위기를 넘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출2:1-10)¹⁸⁸⁾. 40세가 되어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었다(출3장)¹⁸⁹⁾. 다윗은 집안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아들이었다(삼상16:11)¹⁹⁰⁾.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의 질투로 인해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견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어갈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창에 찔리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내셨다. 바울은 당시 실권을 가진 종교집단이었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기는 자였고, 스테반의 순교에 가담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 고난 받는 종이 되고 말았다. 그는 몸에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 하나님께 요청하였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이었다(고후12:7-9)¹⁹¹⁾. 그는 또 수없는 위협에 직면하였다. 굶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많이 맞아야 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칼빈은 욕기에 나타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칼빈은 ‘징벌’이

188) **출 2:10**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89)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90) **삼상 16:11**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재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91) **고후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과 ‘징계’라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⁹²⁾. 그의 시각을 통해 볼 때 욥기의 논리는 고통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패역한 자가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징벌이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징계라는 것이다. 칼빈은 욥1:1의 설교에서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의 질병 자체보다 욥을 더 괴롭게 했던 사람들과 욥이 그 사람들의 참소, 곧 욥 자신을 좌초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참소들을 듣고 한 대답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교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³⁾. 그리고 먼저, 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시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오래 끌게 하고, 그 고통을 더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칼빈은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언제나 그 사람들의 죄의 분량대로 하시는 게 아님을 완전히 확신하였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욥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친구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그 친구들이 욥이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욥1:20-22의 설교에서 환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는 위대한 덕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⁹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할 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마귀 당하여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슬픔을 가지 않거나 어떤 환난을 겪을 때 마음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제어하고 통제하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고뇌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하는 지점에서 자신을 지킬 때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보내실 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는

192) John Calvin, *Ibid.*, 53.

193) *Ibid.*, 58-59.

194) *Ibid.*, 77-79.

것은 우리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시험해 보고 우리의 조건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 신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째서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가?’라고 자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을 당하고 자기들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의 덕을 멈추지 않고 자기들의 정욕과 맞싸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소망을 차버리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무심하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놀랄만한 공의와 선하심과 무한한 지혜로 행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다¹⁹⁵⁾.

그리고 욥5:17-18의 설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참아내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자고 하였다¹⁹⁶⁾. 잘하라는 권면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경고하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악인들처럼 강박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증을 보여 주시자마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굳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195) John Calvin, *Ibid.*, 94-95.

196) *Ibid.*, 116-117.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칼빈의 설교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론이 그의 설교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욱기 설교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설교학에 관한 책을 저술한 일이 없으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설교학자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의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 할 수는 없다. 다만 그의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당시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결단하게 한 강해설교’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칼빈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였던 것이며,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전하고, 설교를 들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높은 뜻을 가진 설교자였다. 그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 ‘성경 전부(Scriptura tota)’를 설교하려고 했으며, ‘성경만을(Scriptura sola)’ 설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죽어 있는 사자처럼 무력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설 새 없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었고, 직유와 은유, 그리고 수사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살아 있는 생생한 언어로 전달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을 벗어나 다른 데로 한없이 달려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욕기를 설교함에 있어서도 칼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욱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는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별히 고난의 의미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징벌’이란 단어와 ‘징계’란 단어를 대비시킨 점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욱기 주해와 설교의 연구를 통해 필자는 설교자와 설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욱기를 통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

의 정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 새롭게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욕기를 설교함에 있어서 현대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안다.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순경(順境)과 고난(苦難), 이 두 가지는 인생에게 있어서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순풍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때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어둠 밤의 격랑 뒤에는 맑고 고요한 아침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욕의 친구들처럼 선불리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칼빈의 도움과 응원을 힘입어 욕기를 들고 새로운 심정으로 청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서적 및 논문>

- 권성수. *성경해석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 권호덕. *종교개혁 신학의 내포적 원리*. 서울: 솔로몬, 1998.
- 김동현. *칼빈의 이사야 설교*. 서울: 솔로몬, 1992.
-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현대 철학적 해석학과 신학적 해석학*. 서울: 박영사, 1993.
-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 김희보. “칼빈주의 연구”, *칼빈주의 성경관*. 김남식편저,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박세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1.
-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4쇄,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박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엠마오, 1992.
-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_____. “해석학” 최근의 칼빈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4.
- _____.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93.
- 홍치모. *宗教改革史*. 5판, 서울: 성광문화사, 1983.

<번역서적 및 논문>

- Archer, L. Gleason. “무오성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의 무오설(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ited by James M. Boice,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Bainton, H. Roland. *종교개혁사(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홍치모·이훈영 역, 중판,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1.

- Calvin, John.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로고스 번역위원 역, 서울: 로고스, 1987.
- _____. *칼빈의 욥기강해, 욥과 하나님(Sermons from Job)*. 서문강 역, 개역3쇄, 서울: 지평서원, 2000.
- Estep, R. William. *르네상스와 종교개혁(Renaissance and Reformation)*. 라운성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2.
- Gonzalez, L. Justo. *종교개혁사(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10쇄,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 Greidanus, Sidney.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The Mor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1995.
- Green, Henry, William. *욥기이해(The Argument of The Book of JOB Unfolded)*. 윤영탁 역, 서울: 엠마오, 1993.
- Harris, R. Laird. *성경의 영감과 정경(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박종철 역, 4판,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0.
- Hengstenberg, Ernst, Willhelm. “*욥기해석 (Interpreting the Book of Job)*”. (Commentary on Ecclesiastes, 1869), 구약신학논문집(제1집), 윤영탁 역편, 8판,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Honsey, E. Rudolph, “*욥기 19:23~27에 관한 주석적 연구(Exegetical Paper on Job 19:23~27)*”.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1950, 153-206, 구약신학논문집(제7집), 윤영탁 역편, 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4.
- Kantzer, Kenneth. “*복음주의자들과 무오성교리*”, *성경의 무오설(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ited by James M. Boice,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MacArthur, Jr. John. and the Master's Seminary Faculty, eds., Stitzinger, F. James. “*강해설교의 역사*”, *강해설교의 재발견(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완 역, 1판 2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Mckim, K. .Donarld. “*칼빈의 성경관*”,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 번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 Morgan, G. Campbell. *욥기분해연구(The Analyzed Bible Job)*. 번역실 역, 서울: 도서출판 목회자료사, 1992.
- Murrey, John.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Neuser, Wilhelm. *칼뱅(Calvin)*. 김성봉역, 경기: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0.
- _____. “칼빈의 예정론-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 주석”. 서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학술강좌, 2003
- Parker, T.H.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John Calvin)*. 김지찬 역, 2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_____. *칼빈신학입문(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1.
- _____. *칼빈과 설교(Calvin's Preaching)*. 김남준 역, 2쇄, 서울: 솔로몬, 1997.
- Reid, Clyde. *설교의 위기(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Lloyd-Jones, D.M. *목사와 설교(Preaching & Preachers)*. 서문강 역, 11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Spitz, W. Lewis. *종교개혁사(The Reformation)*. 서영일 역, 7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Stauffer, Richard. *종교개혁(La Réforme)*. 박건택 역, 4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_____. *칼빈의 설교학(Calvin et Sermon)*. 박건택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Stott, R.w. John. *현대교회와 설교(Between Two World)*. 정성구 역, 중판,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 Wallace, S. Ronarld.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 Wendel, François.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2.

<국외서적>

Barth, Karl. *Die Theologie Calvin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22.

Brunner, Emil. *The Christian Doctrin of God*. trans. Olive Wy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50.

Doumergue, 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Tom. IV, Lausanne, 1910.

Elton G, R. *Reformation Europe 1517-1559*. London and Glasgow: printed in Great Britain Collins clear - Type Press, 1963.

Farley, B. "Recurring Hermeneutical Principles in Calvin's Sermons, Polemical Treatises and Correspondence." in Calvin as Exegete, ed., Peter de Klerk,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95.

Gamble, C, Rechar.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ed., Wilhelm H. Neus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_____.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anslated by David Foxgrover a Wade Provo,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Greef, De Wulfert.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anslator Lyle D. Bierma, English translation, Michigan: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 Grand Rapids, 1993.

Jensen, De Lamar. *Reformation Europe - Age of Reform and Revolu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Messachusetts: D.C. Heath and Company, 1981.

Parker, T. H. L.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inberg: T & T. Clark, 1971.

Warfield, B. B. *Calvin and August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6.

Wright, G. E. *The Christian Interpreter as a Biblical Critic: The Relevance of Valid Criticism*. Interpretation 1, 1947.